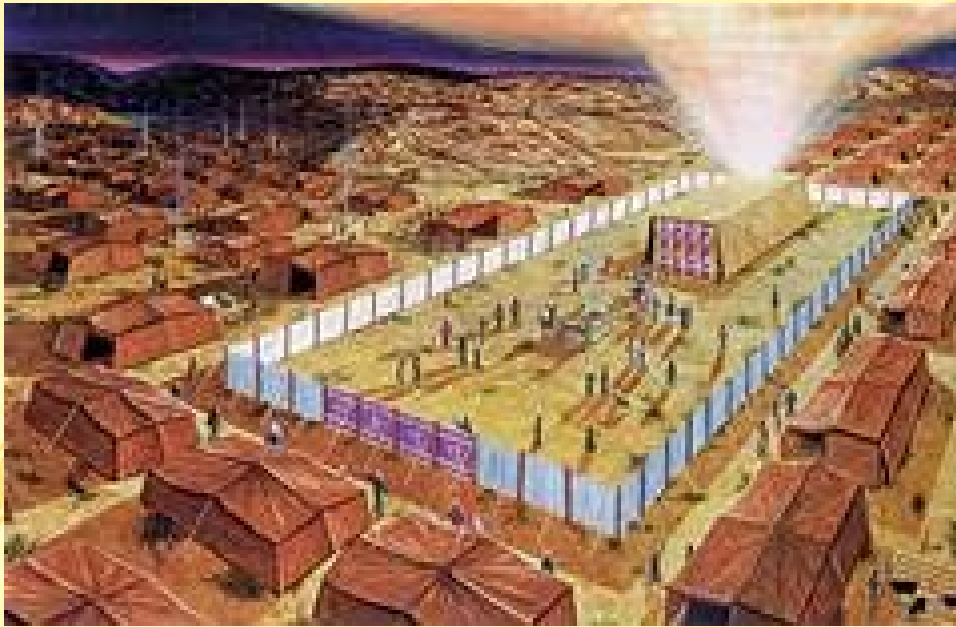


# 성경 공과

제3권

성장반 (Advance Class 1)



성막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3권

Advance Class 1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3권 제4반, senior class만을 가지고 Advanced Class 1으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는 지상의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해주는 사다리입니다.(창세기 28장 12절) 따라서 성서를 꾸준히 읽는 것, 베껴보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이유가 성서의 글자는 예수의 걸음자락 처럼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정성어린 성서 읽기라 할지라도 성서가 불합리하게 기록된 듯 여겨지는 부분은 피할 수 없이 발견되고 이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의 기록에 사용한 언어인 상응(correspondence)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성심있는 성서 읽기를 계속하시는 분들에게 얼마간의 상응 지식을 전달하여 성서 글자가 함유한 속뜻을 살필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영혼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결국 주예수의 품위가 여러분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생활에 있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번역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한 해석에는 직역이 필요한바 다른 성경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사이트에서 찾아 보기 바랍니다.

## 차례

1. 창조 제 5-6일	창세기 1장 20-31절	9
2. 뱀	창세기 3장	14
3. 무지개	창세기 9장 1-17절	20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24
5.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29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36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창세기 41장	42
8. 열 가지 재앙	출애굽기 7-10장	49
9.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59
10. 성막	출애굽기 26, 27장	65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71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3, 4장	78
13.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 9장	84
14. 판관 입다	판관기 11장	89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사무엘상 4장 1-11절 5장, 6장 1-16절	97
16.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1-46절	105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사무엘하 6장	112
18. 성전 건축	열왕기상 6장	117
19. 엘리야의 겹옷	열왕기하 2장	122
20. 요시아 왕	열왕기하 22장	128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91편	134
22. 성전에서 솟는 샘	에제키엘 47장 1-12절	139
23. 느부갓네살왕의 꿈	다니엘 2장	143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아모스 8장	150
25. 강림에 대한 예언	말라기 3장	156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161

27.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20절	168
28. 나인 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30절	173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누가복음 9장 1-36절	179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42절	187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누가복음 11장	192
32.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199
33.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204
34. 부정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210
35. 종려주일(3)	누가복음 19장	216
36. 부활절(3)	누가복음 24장 1-12절	222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3-53절	228
38. 네 기수들	요한 계시록 6장	233
39. 일곱 쟁 봉인	요한 계시록 8; 9장	238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1장 9-27절	244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6:39



# 1

## 창조 제 5-6일

### 머리말

본과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이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창조 제1-4일 동안과 제 7일째에 있는 내용도 언급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0-31절

1장: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낫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며 창조자이시다.
- \* 우리 마음속의 두 평면인 자연적인 평면과 영적인 평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 \*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 \*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바램들을 잘 조절해야 한다.

### 상응 공부 (Correspondences)

- \* 날 = 어떤 일이 이뤄지는 시기
- \* 물고기 = 기억속의 지식에 관한 애착

### 해설

창조의 이야기는 성경의 시작으로 성경 공부의 시작이다. 따라서 창조에 관한 공부는 성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처음 부분에 있어야 할 이야기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창조된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이나 의미 없이 삶을 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본 반에서는 특별히 창조 중 5-6일 사이에 있는 구절을 다루고자 한다. 이 구절에는 고기, 새,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등장한다. 새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창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의 창조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단순한 진화론적인 발전으로 생겨난 고등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살고 있으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는 것을 바랄 수 없다. 인간 또한 동물들과 같은 육체적 욕구와 본능을 가지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욕구와 본능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애착은 동물들과는 달리 육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본능과 자연적인 본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본능을 충분히 발달시켜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육체나 세상적인 열망만을 쫓는 삶을 영위한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가능성과 자연적 가능성, 즉 본문 첫 절에서 언급되는 ‘하늘과 땅’ 모두를 지니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여전히 형체 없이 공허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한 무지의 어둠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님의 섭리로 인해 하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드리워 밝아짐으로 인해 생겨나는 약간의 이해성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우리의 기억 안으로 지식을 모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로 집합되는 모습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식의 보다 높은 것과 보다 낮은 것을 구별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격은 그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비록 소소하기는 하나 독립적인 생각이나 친절과 같은 행위가 거기에 처음으로 돌출된다. 처음 시작하는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자신의 것인 듯 생각하고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가 칭찬받게 될 때 상당히 우쭐해 한다. 스웨덴북은 영적 발달 단계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의 상태, 즉 셋째 날의 상태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넷째 날의 단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된다. 그 이유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은 자아 중심으로부터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삶과 선함 그리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근원되는 것으로서 자신으로부터 그 근원이 있지 않음을 진실로 알게 되는 때를 뜻한다.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순수한 생각과 행위들을 이룰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그 안에 주님의 현존이 없으면 살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예로 이해해 보자. 우리가 두 명의 친구로부터 똑같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마련한 선물을 친구가 매우 기쁘게 여겨서 친구에게 자신이 좋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해 주길 기대할지도 모른다. 반면, 다른 한 친구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친구가 그것을 받고 매우 기뻐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작은 정성이 친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선물을 연관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두 명의 친구 모두 똑같은 생일 선물을 주었으나 전자의 선물 속에는 진정한 선함이 없었고 이기적인 목적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선물 속을 채우고 있다. 후자를 통하여 표현된 이타적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

넷째 날에 이루게 되는 새로운 삶은 어떤 질서 속에서 발달해 간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고기가 창조되고 공중에 새들이 창조되었다. 이는 우리가 지식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지식이 물질적인 것임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가 뭔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러한 물질적인 지식이 영적 발달에 긴요함을 경시해 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말씀에 관한 지식을 기억 속에 채워 놓지 않으면, 우리 안의 진정한 선함은 발달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올바른 것을 아는 능력은 우리의 “바다”인 저장된 지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기억되는 사랑은 주님의 첫 네 명의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자신 안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움직임은 새와 같이 되어 우리 생각을 지성의 더 높은 영역으로 부상하게 해준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배워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능력에 대한 도전이다.

동물은 우리의 애착을 상징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정신 능력, 즉 의지력과 이해력이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능력이 함께 보조를 맞출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한 행동에 대해 생각은 해 보았으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스웨덴볼에 의하면, 이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에 합류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동물로 표현되는 애착은 뭔가에 끌리는 마음 혹은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사랑하는 마음, 즉 애착은 우리의 의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착이 우리가 가진 올바른 삶에 관한 지식과 생각에 응하여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 있어야 할 질서를 모두 잘 지켜야만 할 것이다. 본문 끝부분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도록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나는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별 일 없을 거야.”라고 착각하면서 자만하게 되면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일이 혼함을 명심해야한다. 그 이유는 자만심과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낳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Suggested Questions on the Lesson)

- 1)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 2) 왜 이 책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이 책의 첫 11장까지와 나머지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5)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6) 창세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무엇인가?
- 8) 몇 일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 9) 날이란 말은 우리의 24시간을 뜻하는가?
- 10)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1) 해와 달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4)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5)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 16)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17) 태초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가?
- 18)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 20) 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21) “정복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성경 2)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3) 순수한 상징
- 4) 구약과 신약성서 5) 모세 오경 6) 시작 7) 한 처음에

- 8) 6 9) 아니요 10) 해와 달 그리고 별 11) 하느님에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12) 고기와 새 13) 동물 14) 인간 15) 하느님의 모습  
 16) 변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17) 아니요 18) 하느님이 쉬셨다  
 19)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20) 지성과 생각 그리고 애착 21) 조절하라

## 2

## 뱀

### 머리말

1권과 2권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을 상기하면서 본과를 시작한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심정 상태가 에덴의 동산이며 인간이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산의 두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본다.

### 성서 본문: 창세기 제 3장

3장: 1.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나?”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3.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뽀뽀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8.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따 먹지 말라고 알려 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13.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14.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17.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찌기 알려 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18.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19.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21.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22.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하시고 23.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었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 교리 요약

- \* 우리의 중심 원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자아를 신뢰함이라는 두 가지로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
- \* 현상(외관 혹은 가상)에 관한 교리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신 서술과 연결된다.

### 상응 공부

나무 = 일반 원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함을 중심으로 하는 원리

뱀 = 감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들 = 진정한 선함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

### 해설

창조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영적 발달에도 응용된다. 영적 발달은 거듭남이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다. 거듭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아닌 주님께 언제나 신뢰를 두고 모든 선함이나 진리가 그분에게서만 비롯됨을 알며, 그분께 순종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자신의 영원한 삶에 복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 상징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간은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차원 낮은 욕구들을 잘 조절하면서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태초의 사람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영적 삶의 가장 높은 수준인 태고 교회로까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에서 타락하여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어 자신의 삶을 그분의 질서에 따르도록 하면서 교회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난 후 자신이 충분히 배웠으니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일 것이다.

본문은 태고 교회의 타락과 그 경로를 통해서 악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제 3절에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도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선함과 진리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믿으려 든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자유를 거둬버리지 않고서는 주님께서도 막으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님께서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원리에 대한 경고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주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한 순간일지라도 네 스스로 선함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네 마음속에 허용치 말라. 그 이유는 그 허용이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일 것이다.

우리가 종종 스스로를 내맡기게 되는 유혹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중에서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뱀이다. 뱀은 우리의 의지인 이브를 부추긴다. 자신이 반드시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의 의지를 부추기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정말로 나쁠까하고 생각하며 이미 알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일 리가 없다.”라며 결론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이브와 같이 자신의 추론 능력에 유혹당해서 따게 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넘겨준다. 이리하여 우리의 의지와 추론 능력 모두가 유혹에 빠져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 즉각적인 결과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그 잘못을 변명으로 덮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앞을 가린 무화과나무 잎이란 자신 속에 있는 자연적 선함에 관한 생각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진함과 신뢰함에 어울리는 모든 기쁨들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은 피할 수 없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실이 있을 후 의를 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힘든 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며 우리 마음의 밭을 일궈야한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동산 입구에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이다. 거름들이란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신성한 섭리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형상화한 상징적 모습이다. 칼이란 진리가 싸우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특히 불칼이란 신성한 사랑에서

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검으로 한 쪽 날은 악을 저주하고 다른 한 쪽 날은 선을 방어하는 힘을 상징한다.

우리의 의지가 이기적인 느낌들을 발달시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수단으로 하여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산으로 이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배워야 한다. 즉,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맛보아야만 하고, 설사 자신의 뜻과는 반대될지라도 의를 행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 우리는 때로 아기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 아기처럼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중얼거린다. 이때의 우리는 정말로 아기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아이의 순진함과 순수함이 부러워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할 우리 앞에 놓인 먼 길에 대한 탄식을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영적 진보를 해 나가는 데는 어떤 지름길도 없다. 설령 우리가 선 대신 악을 종종 선택함으로써 인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이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차후의 선택에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뱀과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질 저주란 주님께 불순종하고 자아에 신뢰를 두어 피할 수 없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의 구약성서를 통한 인간의 이야기는 주님께에서 멀어지는 하강의 일도이자 꾸준한 투쟁이다. 새교회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죄론”을 믿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악에 대한 경향성을 내리받아 태어날 뿐이다. 사람이 악에 대한 경향성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악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이 악에 대한 경향성을 인식하고 점검하게 되면, 그는 악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듭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간의 영적 하강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떤 시험에도 저항 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부수심으로써 하강의 일도로만 차단된 인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된 것이다. 본문 15절은 이런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이다.

## 질문 정리

1) 성경 첫 장 첫 절을 기억하는가?

- 2) 우리 속의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 3) 영적 의미에서 창세기 제 1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 4)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 5)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6) 지상에서 발달된 첫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7) 첫 교회의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8) 제 1장이 끝난 뒤 첫 남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9) 어떤 특별한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가?
- 10)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생명나무는 이야기 처음에 동산 어디에 있었는가?
- 12) 첫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 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뱀은 무엇인가?
- 15)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6) 이브와 아담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17) 그 뒤 그들은 왜 부끄러워했는가?
- 18) 그들은 그들의 알몸을 어떻게 가렸는가?
- 19) 불순종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20) 동산은 어떻게 보호 되었는가?
- 21) 주님의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한 처음에... 2)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3) 거듭나는 단계
- 4)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것 5) “땅”을 지배하라 6) 태고 교회
- 7) 에덴 8) 아담과 이브 9)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10)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원리 11) 중앙
- 1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 13)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 14)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15) 절대로 죽지 않는다.
- 16) 열매를 먹었다 7)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18) 무화과나무 잎
- 19) 동산에서 추방됨 20) 거룩들 21) 제 15절 참조

### 3

## 무 지 개

#### 머리말

뱀의 유혹에 관한 내용은 태고 교회의 타락에 관한 내용과 직결된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타락의 결말인 파멸로부터 남겨져야 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성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9장 1-17절

9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낚아, 온 땅에 가득히 붙어나거라. 2.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5.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양갓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양갓음을 하리라. 6.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7. 너희는 많이 붙고 붙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9.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10.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11.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12.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13.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 나는 너 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17. 하느님께서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 교리 요점

- \*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 \* 재구성과 거듭남의 교리
- \* 역사의 기초로서 이어지는 주님의 처방에 관한 생각들
- \* 고대 말씀

### 상응 공부

40 = 시험

홍수 = 삶을 파괴하는 거짓들

무지개 = 우리 속에 담긴 말씀에서 받은 진리들이 우리를 계발시키기 위해  
주님에 의해 사용됨

### 해설

태고교회 사람들은 삶의 진리를 주님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고자 하여 자연적인 감각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적 측면은 멈출 수 없는 타락을 시작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이기적인 욕망과 그와 짝을 이루는 거짓들로 침식당해 결국 모든 영적인 호흡과 진정한 인간 생명이 질식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산꼭대기까지 채우며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을 파괴시키는 홍수이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끝까지 순종하고자 했던 극소수의 사람, 즉 “남겨진 자”들로서 태고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질 때에도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주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인해 완전히 멸망되는 것으로부터 보존시키신 방법이다. 각 개인의 인생에서 이를 보면, 주님께서 막 태어난 우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닌 이기심을 수단으로 하여 인도하시는 방법에 해당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께 순종할 때 순종을 선택함이 자신에게 더 이로움을 눈치 채는 모습과 흡사하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르치는 좋은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를 화나지 않게 함이 우선이나 그렇게 하다보면 그 좋은 습관이 자연히 몸에 베여 결국은 올바른 것을 행함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과 같다.

성경 이야기에서 “땡이 다 마른다”함은 과거 시대의 괴물 같은 거짓들인 홍수가 다 빠졌다는 말이다. 이것이 완료된 후에야 남겨진 선한 것들이 지상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첫 행동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다. 이 행동은 말씀 속에서 동물을 “번제물”로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노아가 제단 앞에 동물을 바쳤으나 그 동물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단의 불 앞에 동물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의 애착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성스럽게 구별함을 의미한다고 인식했다. 아주 오랜 후 이런 의미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동물 자체를 태우기 시작했다. 주님께서서는 이를 허용하셨는데,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저질러서 이를 예방하시기 위해 동물의 번제를 허락하신 것뿐이다.

이후 주님은 성경 이야기에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만드셨는데, 이후로 인간이 악과 거짓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해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징표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무지개는 대기 중의 조그만 물방울에 태양의 흰빛이 굴절 반사되어 태양의 반대 방향에 반원형으로 길게 뻗어 나타나는 일곱 가지 빛깔의 모양이다. 무지개는 인간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완전한 상징적인 묘사이다. 아담의 시대처럼 주님의 빛은 더 이상 인간의 애착에 직접적으로 비추실 수 없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인간의 지성 안에 받아들인 말씀의 진리에 빛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씩만 계발시켜 주신다. 각자의 특별한 상태나 필요성에 부응하여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응용할 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무지개를 응시하면

아름다운 색깔로 나타나는 현상 곧 빛의 하모니에 해당된다. 흔히 무지개는 폭풍이 거의 가실 무렵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무지개는 곤경과 시험의 때에 우리와 현존하셔서 보호하시고 계발해 주시는 주님을 상징한다. 우리의 어느 심정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특별히 시험받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이담으로 그려진 사람들은 소위 태고교회를 형성했다. 이 교회는 ‘애착적인’ 또는 ‘천적인’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신화에서는 이를 “황금시대”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금속들 중에서 금이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고대 교회, 즉 신화에서 “은시대”라고 부르며 노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지적’ 또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은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신화는 그 근원을 참작한다면 역사시대의 사람들이 만든 창작품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 상응어로 말했던 초기 사람들로 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질문 정리

- 1) 지상의 첫 교회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 4) 선한 나머지의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5) 홍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 6)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7)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8) 그 약속의 표시는 무엇이었는가?
- 9)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10)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11) 물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2)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3)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태고 교회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14)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 15) 왜 무지개가 노아와 만든 새 언약의 표시가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에덴 2) 태고교회 3) 인간의 불순종 4) 홍수
- 5) 거의 일년(참조 창세기 7:11,8:13) 6) 제단을 쌓다 7) 더 이상 홍수는 없다
- 8) 무지개 9)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10) 폭풍이 끝난 직후
- 11) 진리 12) 지성 안의 지식들 13) 지각 14) 양심
- 15) 새로운 상태를 그려주려고 - 빛이 기억 속에 든 진리를 비춘다

## 4

#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 머리말

태고교회와 고대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선하여서 남겨진 노아와 아브람의 부르심을 재조명해본다. 그리고 본문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6장

16장: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뜻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3.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5. 그러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7. 야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었다. 8. 그 천사가 “사래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9.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10.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11. 야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 주셨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뵈다니!”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14.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팔십 육 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 교리 요약

- \*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
- \* 우상의 기원
- \* 겸손과 순종 - 영적 발전의 기초

### 상응 공부

가나안 땅 =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상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평면  
 아시리아 = 생각하고 추론하는 평면

이집트 = 삶의 가장 바깥 평면, 기억적인 지식  
광야 = 혼돈되고 정착되지 않은 심정상태

## 해설

창세기 12장 이후의 성경은 많은 비유들을 내포하나 대부분이 실제 역사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11장까지는 선사시대, 즉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브의 창조 직전까지에 있는 에덴의 동산으로 묘사된 태고교회의 최고 수준이 바벨탑의 이야기로 묘사된 고대교회의 최저 수준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창조 이후 사람들이 영적 사람이 되어 가는 대신 더욱 더 외적이며 세사적인 상태로 되어 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의 교회는 천적인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영적 교회였다. 반면 에벨(창세기 11:14)로 묘사된 세 번째 교회는 자연적인 교회였다. 이후 공부에서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는 이 교회도 점차 내면의 모든 이해성을 상실하여 교회 안에서 그 이해성이 완전히 상실됨에 따라 결국 그들 속에 영적 생명이 없게 되어 표현뿐인 교회 즉 교회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고대 교회가 기울고 몰락된 것은 그들의 “자기 총명을 자랑함”이 극에 달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위대한 지혜를 가졌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가진 지혜가 주님에게서 온 선물임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고대 교회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에 사용했는데, 그들은 상응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자연물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잊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기원이며 이리하여 고대 교회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고대 종교들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상응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대 교회의 예배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느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순종하려는 간절한 바램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다. 아브람 또한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하셨다. 아브람이 선택된 이유는 그의 맹목성에 가까운 순종심 때문이었는데,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태고교회나 고대 교회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우리의 유전적인 배경을 상징하고 아브람은 주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상징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아이로

머무르는 인간은 없다. 즉, 우리 모두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간다. 이것이 태초의 인류가 자신의 삶을 원했듯이 아브람도 자신의 아들을 원했음으로 표현된다. 자녀란 언제나 새로운 발달을 의미한다. 아들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딸은 선 또는 애착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발달은 변화를 의미한다.

아브람의 첫아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아브람의 진정한 아내 사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브람과 사래에게 잘못이 있을 뿐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는 잘못이 없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 초기의 사람들은 일부일처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 이후 이 진리는 많은 거짓들과 뒤섞이면서 퇴색되어 버렸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래의 시대에는 일부일처가 옳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행했으나 그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무라시지 않으셨다. 그렇다하더라도 잘못된 행위에 따르는 악한 결과가 없을 수는 없었다. 이 법칙은 주님의 영구불변하는 법칙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몰라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분의 자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행위가 가져오는 인과만큼은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은 삶의 여러 평면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 이집트는 자연적인 지식 또는 외부의 지식 곧 기억속의 지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인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애착)을 그리는데, 이집트 출신인 하녀 하갈은 자연적인 지식 또는 기억적인 지식에 대한 애착을 상징한다. 주님 없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로 인한 우리의 첫 수고는 자연적인 애착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한 수고로서 만들어지는 사상은 결코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사는 자”가 되었고, “들나귀 같은 자”가 되었다. 어렸을 때 우리의 애착들은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 쉽게 기울고 그러한 만족으로부터 추론하기를 즐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며 부모나 선생님들의 말을 비웃기도 하는데, 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들을 경멸하고 냉소하는 것(창세기 21:10)과 같다.

하갈은 우리 안에 있는 애착이 지극히 외적이고 세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한 우리의 추론을 표현한다. 하갈의 자만심(자랑)은 그녀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것은 자만심에 찬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정상적인 길이나 고정된 안식처가 없고, 곡식을 생산할 잘 가꿔진 논이나 밭도 없는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진리를 주심을 뜻한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 즉 진리의 전달자가 되는 그분의 말씀은 빈들을 벗어나 주인 곁으로 되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보다 더 슬기로운 이들에게 겸손하고 귀를 기울이면 만사가 모두와 더불어 잘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우리의 첫 번째 추론력의 큰 결점은 자긍심이 지나쳐 오만해 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스스로가 영리한 듯 여겨지더라도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광야 속에서 헤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시험이나 곤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할 진리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세 번째 교회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가나안 땅의 어느 방향에서 정착했는가?
- 3)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아브람이 원한 것 중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5) 사래는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가?
- 6)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 7) 그 여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8) 왜 하갈은 안주인을 피해 도망갔는가?
- 9) 그녀는 어디로 갔으며, 주님의 천사는 어디서 그녀를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렀는가?
- 11) 천사는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2)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남쪽 3) 사래 4) 아들

- 5)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 6) 이집트 7) 안주인을 업신여겼다
- 8) 박대 받았기 때문 9) 광야, 샘터 10) 되돌아가 순종하라
- 11)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 이스마엘

## 5

# 이삭과 리브가

### 머리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둔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사악이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도 알아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4장

24장: 1.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2.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심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3.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4.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고 하여라.” 5.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 가도 됩니까?” 6.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7.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 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8. 신부감이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가지만은 말라.” 9.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10.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 갔다. 11.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12.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심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13.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심복 이사악의 아내감으로 정해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15.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16.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17.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 가서 그를 반기며 항아리의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청했다.

18.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19.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20. 그리고 병에 남은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길으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22.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 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 주고 다시 십 세겔 가는 금팔찌 두 개를 팔목에 끼워 주고는, 23.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 댁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24. 리브가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하고 대답하고 나서 25.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만한 방도 있습니다.” 26.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27.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고나” 하며 찬양하였다. 28. 아가씨는 뛰어 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 나왔다. 30.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32.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 왔다. 33.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34.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35.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36. 안주인 사라는 늘그막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7.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38.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 오너라.’

39.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었더니

40.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 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네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42.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42.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44.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45.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으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46.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47. 저는 리브가에게 뉘 덕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고리를 걸어 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덕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 내게 하셨습니다. 49.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길을 찾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51.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53.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54.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 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하고 듣지 않았다.

58.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 봅시다.” 58.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하겠습니다.”

59. 그러자 그들은 누이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역조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 때 이사악은 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 곳은 내썩땅이었다. 63. 저녁때가 되어 이사악은 들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사악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 아브라함  
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사악에게 보고 하였다. 67. 이사악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



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 교리 요점

- \*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과 보다 낮은 합리적인 능력
- \* 결혼에 관한 교리
- \* 생명이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함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 상응 공부

아들 = 진리들

딸들 = 선들

남편 = 선

아내 = 진리에 대한 애착

### 해설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가장이 되었다. 이삭은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하는 판단의 기초를 세상적인 사상에 두는 대신 주님께서 말씀에서 밝혀주신 진리의 믿음에 두는 추론력을 표현한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매우 늙어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어린 시절 상태인 단순한 신뢰와 순종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합리성”이 발달되는 때를 그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이 사라가 죽은 뒤 진행되었음 역시 의미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부름 받았을 때 홀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라를 포함해서 형제인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갔다. 반면에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중도에 정착했는데, 그곳은 메소포타미아로 “강들 사이”(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란 뜻이다. 나홀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한 지역의 이름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은 성경에서 “나홀성”이라고도

부르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로 결정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하란이라는 먼 곳까지 여행 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룩한 땅의 남쪽 지역인 헤브론이었다. 그가 먼 곳에 있는 친척에게서 며느리를 구한 이유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거주한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므로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결혼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한다. 결혼 전의 남자는 이해성을 그리고 여자는 애착을 표현한다. 선한 이해성이 악한 바램(애착)과 결합하면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나쁜 일의 “주모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악한 바램과 상통한다. 즉, 주모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악한 바램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영적 합리성인 이삭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함을 사랑하는 마음(애착)과 결합되어야만 했다. 즉, 세상적인 포부나 바램과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합리적이려면 바른 생각과 선한 바램을 모두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나홀의 가족은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히 선한 상태를 표현한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샘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샘이란 진리를 표현한다. 진리를 길어 올리는 샘이란 말씀의 글자이다. 이와 더불어 기억되는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일 것이다. 본문 18절에서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세요.”라고 말하며 기쁘게 물을 길어 올리는 리브가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 애착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까지도 말씀이 인도해 주기를 바램을 그린다. 낙타란 자연계에 관하여 알고 즐거워함을 표현한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심복,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의 삶을 규율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본문은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안내를 구한 후 그분의 안내를 따라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은 종교적 바탕을 가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 이유는 믿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며 그들 삶의 가장 깊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두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래야

한다. 이리하면 그들이 갖는 목적 측면에서 일치되어 그들이 가질 자녀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일치되고, 그들의 가정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위에 기초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명심하자.

### 질문 정리

- 1)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디 출신인가?
- 3) 왜 그는 거룩한 땅에 가게 되었는가?
- 4) 그는 어디서 정착했는가?
- 5)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인가?
- 6) 하갈은 누구인가?
- 7) 아브라함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8) 이사악은 누구의 아들인가?
- 9)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는가?
- 10) 왜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 11)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 12) 보낸 곳은 어디인가?
- 13) 누가 그곳에 정착했었는가?
- 14) 아브라함의 심복은 어디서 멈췄는가?
- 15)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 16) 누가 그 징조를 성취해 주었는가?
- 17) 리브가는 누구의 손녀인가?
- 18) 왜 그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심복과 떠나도록 했는가?
- 19) 이사악은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가?
- 20) 이사악은 그녀에게 만족했는가?
- 21) 이스마엘과 이사악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우르 3) 하나님이 부르셔서 4) 헤브론 5) 사라 6) 사라의 하녀
- 7) 이스마엘 8) 사라와 아브라함 9) 이사악을 놀렸다 10) 우상 숭배자여서
- 11) 심복 12) 하란 13) 아브라함의 형제 14) 샘터에서 15) 물을 길어 올려주는 여인
- 16) 리브가 17) 나홀 18) 그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어서
- 19) 들에서 20) 만족했다 21) 첫 번째와 두 번째 합리성

## 6

#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 머리말

야곱의 어린 시절과 하란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야곱의 꿈을 간략히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2.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엮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3.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 냐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 자리에 덮어 두는 것이었다. 4.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5.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말고요.” 6.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7.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 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 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9.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11.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12.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기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13.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14.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16.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18.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칠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19.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20.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칠 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21.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2.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24. 이 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25.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 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럴 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26.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하며 부탁하였다. 27. “초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주어야 하네.” 28.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칠 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31.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32. 레이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33. 레이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이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5장: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갈, 즈불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 교리 요약

- \* 삶의 세 평면은 의지와 사고, 행동평면 혹은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평면이다.
- \* 이러한 평면들은 자연적인 평면에서 천적인 평면으로 발달되어 간다.
- \* 자연적인 평면은 겉과 속을 지니고 있다.
- \* 행동속의 동기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선할 수 없다.

### 상응 공부

아브라함 = 천적 또는 의지평면에서의 선택

이삭 = 영적 또는 사고평면에서의 선택

야곱 = 자연적 또는 행동평면에서의 선택

레아 = 외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라헬 = 내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 해설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각기 새로운 발달은 삶의 전체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같은 형식으로 있게 된다. 새로운 발달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의 의지 속에서 뭔가에 대한 바램 곧 열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에 상관없이 동기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일단 하나의 바램이 생기게 되면 그 바램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추론력에 의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램과 그에 따른 생각이 뭔가 실질적인 성취를 원한다면, 이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단계가 우리의 영적인 발달과 진보라는 측면에서 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으로 표현된다. 야곱은 성취를 이루는 자연적 곧 바깥쪽 평면을 표현한다. 우리는 선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올바른가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삶의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바램과 생각이 많다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높은 이상 곧 의도나 생각들을 삶으로 실제화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에 동감한다. 따라서 우리의 바깥쪽 삶 곧 일상생활을 천국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느리고 긴 과정이다.

야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격자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가 형에게 내리는 축복을 가로챘고, 이로 인한 형의 분노로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간 살아야 했다. 또한 그는 형을 피해 달아나는 여행 초기 베델에서 경이한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약속은 자신의 여행을 잘 마무리 지어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삼촌 라반을 섬기되 그것도 흥정 끝에 있어진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야곱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각 개인이 거듭나기 전 있게 되는 외적인 삶의 특징을 상징한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 주위로부터 자신이 위로 받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 발생하는 일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높은 뭔가를 움켜쥐고 있음을 이미 보고 계신다. 우리의 어린 시절 때 저장된 순진하고 신뢰 깊은 유아기의 상태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주님께 의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주님께서 심어두신 것들로서, 그분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야곱의 환상이 그의 전 인생과 더불어 머물고 있었듯이 이 상태들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이상향을 붙잡고 있게 된다.

이런 사실들은 야곱과 결혼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딸이란 애착 곧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언니인 레아는 삶의 외부 측면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려준다. 레아가 언니라는 것은 진리의 발달이 외부에서 먼저 있게 됨을 뜻한다. 이는 보다 높은 것을 아는 상태가 우리 안에서 먼저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합리적 능력의 발달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서 이삭으로 발달되는 순서와 같다. 이렇게 처음으로 발달되는 우리속의 마음 곧 진리에 대한 애착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흠이다. 이는 본문 17절에서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부족한 안력)를 가졌다”는 말로 서술되고 있다. 반면에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라헬은 내면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곧 진리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야곱이 하란 지역 근처의 샘터에 멈췄을 때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그곳으로 왔고,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반하고 만다. 하란 지역이란 말씀을 담은 글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 양과 같은 순진함은 주님께 의해 우리의 마음에 되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영적 진리를 배우는데 기쁨이 동반되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즉시 승낙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반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야곱이 자연적 평면 수준의 선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라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칠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기로 라반과 합의했다. 그녀를 위한 노력의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그에게 주어진 아내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칠 년을 일해야만 했다. 우리는 상황과 시기는 다르나 이러한 야곱의 상황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고상한 삶의 환상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달성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력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다시 다짐하게 될 때 그 삶은 우리 앞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다. 라헬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는 야곱에게 첫 네들을 낳아 주었고 그 후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성경에서 자녀의 출생은 우리가 선과 진리를 생산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진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라헬은 삶의 시작 초부터 우리의 이상향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이상향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성의 진보와 더불어 진리의 외면 혹은 그릇이 완성되어야 하고, 더 높은 지식의 획득이 있기 전 보다 낮은 수준의 지식부터 충족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뭉가를 담아 두고자 할 때 담아두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하나 실제로는 담아질 물건에 적절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직업을 선택함에서 있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이상향은 출발 당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향의 성취는 사실상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뤄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표현한다. 복합체(complex)란 라틴어의 “함께 낀 꼬나풀”이란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이 단어는 흔히 우리의 근대적인 삶에서 사용되기도 하다. 하지만 사용 빈도에 비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고려해 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즉, 우리는 현실적으로 진정한 복합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복합되는지, 자신의 마음이 상대방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떤 동기와 생각이 가장 높은 것이 되어 다른 것을 규율할 것인가 등이 때 시간마다 얼마나 다양해지는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본문 이후에도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다. 스웨덴북은 이들이 언급되는 순서는 언급된 구절의 앞 뒤 문맥을 가려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한명씩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없으나 본문에서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분은 라헬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은 야곱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들로서, 영적인 선과 진리를 표현한다. 이들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서 더욱 상세히 다룰 것이다. 요셉은 하란 지역에서 출생한 마지막 아들이고, 베냐민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땅으로 귀향한 후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생했다.

## 질문 정리

- 1) 야곱은 어떻게 에사오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 5)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야곱은 어느 딸을 사랑했는가?
- 7)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딸은 누구인가?
- 8)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 9) 그의 아들은 몇 명인가?
- 10)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11) 그가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인가?
- 12) 베냐민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 13)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하란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레아와 라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2) 에서의 위협 3) 하란
- 4) 라반 5) 레아와 라헬 6) 라헬 7) 레아 8) 20년 9) 열 둘
- 10) 요셉과 베냐민 11) 요셉 12) 베들레헴 근처 13) 의지와 생각과 행동
- 14) 말씀
- 15) 진리에 대한 외면의 애착과 내면의 애착

## 7

###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 머리말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친숙한 말씀이다. 줄거리의 앞뒤를 질문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본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41장

41장: 1. 그로부터 세월이 이 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2.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고 있었다. 3.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4. 이내 그 살이 찌고 잘 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5.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6. 그런데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7. 더우기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8.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9. 그 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10. 언젠가 꾀하게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11.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14.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13.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풀다면서?”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꾀하게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17.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18.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는 것이었다. 19. 이어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20.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는 것이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 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 22.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즐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돌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23. 그러나 곧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24.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미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5.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26.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27.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암소나 셋바람에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8.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30.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31.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32.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3. 그러나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오분의 일씩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십시오. 35.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에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37.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39.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40.

그러나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41.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42.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 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3.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렀거라”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44.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45. 파라오는 요셉에게 시브넛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47.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48. 이렇게 에집트 땅에서 칠 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에 갈무리해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49.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50.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성직자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51.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하면서 요셉은 만아들의 이름을 므나쎄라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53. 이집트 땅에서 칠 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댔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 갔다. 57.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물려들었다.

### 교리 요점

- \* 기억 안에 들어 있는 지식의 본성
- \* 영적 사항이 기억 속에 든 지식의 통치자이다.

### 상응 공부

요셉 =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기근 = 지식의 결핍이 길어지는 때

### 해설

이집트에서 권력을 쥐게 되는 요셉의 부상은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끄는 것은 오로지 영적 원리의 통치뿐임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음을 그린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연적인 지식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만족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듯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파라오의 꿈이 바로 그 때를 그려주고 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허울 좋은 논쟁은 본문에서 등장되는 이집트의 마술로 상징되는데, 이집트의 어떤 마술사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허울 좋은 논쟁은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어떠한 답도 해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 깊은 곳 곧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그곳에 우리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었던 누군가를 우리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한 때 제자들에게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했으나, 때가 오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하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 교훈의 대부분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파라오의 꿈을 마술사들이 해석할 수 없자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이 갑자기 요셉을 상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통치자로 요셉을 선택한 파라오 휘하의 이집트란 올바른 질서로 기울게 되는 실용적 삶을 그린다. 이 삶 속에서의 칠 년간의 풍년이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열심히 배워 행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풍요로운 시기에서 얻은 경험들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흥년이라는 의혹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저장된다. 우리가 슬픔과 시험 속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선함과 우리 위에 운행되는 신성한 섭리에 관해 배운 것들을 상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마다 요셉의 곡식창고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린 시절에 습득되었으나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영적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질서에 일치되도록 현명하게 인도하게 된다. 하지만 본문 이후의 성경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치해야 한다고 느낀 후에도 세상적인 학식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곧바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높은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단번에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집트에의 노예 신세를 지나서 사십 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느꼈다하더라도 그것이 거둬서 다져져야만 우리의 마음에 정착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다. 이리하여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요셉의 뼈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데 많은 세월이 소요됐던 것이다.

우리는 배울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의 이야기들을 익혀서 우리의 지성 속에 저장해 두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궁핍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든 지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시련에 저항하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진정으로 슬기롭다면, 인생의 출발 초부터 영적 사항들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라오가 요셉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한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시종장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 3) 왜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는가?
- 4) 파라오의 두 꿈은 무엇인가?
- 5)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6) 요셉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충고했는가?
- 7) 파라오는 그 충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 8) 파라오는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가?
- 9) 파라오는 요셉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도록 했는가?
- 10)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11) 요셉은 어떻게 기근을 준비했는가?
- 12)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2) 꿈을 해석해 주었다
- 3)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 4)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  
잘 여문 이삭 일곱-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
- 5)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 6)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양식을 저장하라
- 7) 요셉 8) 전 국토의 통치자 9) 아세넛 10) 므나쎄와 에브라임
- 11) 전 국토에 양식을 저장했다 12)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
- 13) 기억속에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 14) 새 진리를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바쁘다는 식



## 8

# 열 가지 재앙

### 머리말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본문 전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두면 공부하는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어려운 광야 생활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7-10장

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6.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 아론은 팔십 삼 세였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 들었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12.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15.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18.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 야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그릇이나 돌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20.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 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21.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23.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 갔다. 24.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25.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칠 일이 지났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7.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28.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 지어 올라 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 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 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술과 떡 반죽 그릇에도 뛰어

들리라. 29.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 오르리라.”

8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 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3.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5.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6.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9.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 갔다. 10.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11.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 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에게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에 천지가 되리라. 18.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에게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19.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20.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술한 등에게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

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에 등쌀에 쑥밭이 되었다. 21.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홀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4.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라”하고 허락을 내렸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에게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 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변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6.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27.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등에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3. 야훼의 손에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5.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6.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솔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9.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굼아 터지게 되리라.” 10. 그들은 가마솔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모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굼아 터지게 되었다. 11. 이집트의 미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미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12.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4.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16.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18.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역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 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였으나 21.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어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졌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24.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25.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옳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28. 그러나 야훼께 기도해 다오. 하느님께서 발하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디어 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 드리리라. 30.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느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판났으나, 32. 밀과 쌀보리만은 아직 이삭이 펠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33.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34.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35.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10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2.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5.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갇아 먹으리라. 6.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도 데려 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10.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 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 버리리라.” 13.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샷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샷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 전역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귀와 나무

열매를 먹어 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17. 한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18.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19.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바다에 쓸어 넣었다. 20.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싸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들여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25.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6.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27.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목적에 대한 초점을 잃을 때 사건이 발생된다.
- \*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높은 본성을 점진적으로 파괴시킨다.
- \* 악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 상응 공부

파라오 = 좋은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세상 삶의 원리  
나쁜 측면에서 볼 때 세상욕의 원리  
이스라엘의 후손 = 우리의 영적 가능성들

## 해설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의 자연적 속성, 즉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자연적 속성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천국의 신비 제 5326항).”란 말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과거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내세운 파라오란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자연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야겠다고 하며 각종 재앙이 자신들의 국토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고집 부리는 파라오는 거듭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자연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우리는 거듭남의 유무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집트란 우리의 기억적인 지식의 평면을 말하며, 이집트인들이란 기억적인 평면 위에서 살게 되는 우리속의 다양한 부분들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 있게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존은 기억적인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본문과 본문 이후의 구약성서를 망라하여 우리속의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곳이 바로 보다 높은 우리의 평면으로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역대 파라오들이 요셉을 점점 잊고 히브리인들을 노예화시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진리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리정돈 해놓는 상태에서도 우리속의 깊은 바닥에 잠식해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고개를 들고 나와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여 결국 보다 높은 우리의 본성까지도 노예로 전락시킴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의 범인으로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곤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의 파라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호소하는 소리에 냉랭하게 비웃는 파라오의 모습, 즉 주님의 진리가 자신에게 호소해 오는 어떤 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가 어떤 것을 일깨워 주게 되면 그의 고집은 더 강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부딪침이 계속됨에 따라 결국은 그의 깊은 상태가 더 뚜렷해진다. 열 재앙들은 전적으로 물질주의적이며 세상적인 사람의 내적 삶 속에서 발달된 더욱 깊은 거짓과 악들이 그 자태를 차츰 드러내는 것을 그린다.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 강에서 튀어나온 개구리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춰 추론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말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위의 두 이적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파라오가 개구리들을 제거하는데 모세를 시켜야만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집트인 마술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기의 습격은 위의 파라오 같은 마음이 “땅의 먼지”에서 튀어 오르는 것, 즉 감각적인 바램으로 인해 감염되는 것에 관한 표현이다. 이 먼지란 창세기 3장 14절에서 “흙을 먹어야 하리라”라고 뱀이 저주된 때의 흙과 같은 의미이다. 이 재앙 뒤에 따르는 등에 소동은 위의 감각적인 바램들의 결과로 마음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쉼 수 없는 거짓 생각들을 말한다. 이런 감각적인 바램과 거짓 생각에 따르는 발견이란 한 인간 속에 있게 되는 자연적인 선한 바램들의 황폐해진 모습이 다섯째 재앙, 즉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황폐해진 마음 바탕이 되면 안쪽 삶에 든 악이 표면으로 돌출하기 시작한다. 이는 피부병이 전국에 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피부병 곧 악이 표면에까지 표출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었던 모든 진리와 선함이 파괴해지는데, 이것이 일곱째와 여덟째 재앙인 우박과 메뚜기 소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인간 마음과 일상생활 곧 안쪽 삶과 바깥 삶이 쓸모없이 되면 어둠이 땅을 덮게 된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재앙, 즉 이집트의 모든 첫 배 새끼가 죽는 재앙이란 이러한 사람이 믿음을 놓았던 그 어떤 것 속에도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그의 심정 속에 선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 믿음 역시 전혀 쓸모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위의 표현들은 매우 어둡지만 이는 분명한 진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만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애쓴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있게 되는 빛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의 굴레를 벗으려 한다는 것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로 주님께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거듭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차례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하지만 그곳에 내려간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거룩한 땅인 영적인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의 편리하고 안일함에 포로가 되면, 우리는 우리를 매어놓은 사슬을 부수고 어려운 길로 해서 되돌아오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의 법인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 2) 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두려워했는가?
- 3)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들어 세우셨는가?
- 5)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6) 어떤 이적을 행해서 모세가 권능을 가졌음을 입증해 보게 했는가?
- 7)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
- 8) 모세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났는가?
- 11)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3)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14) 마술사들은 어떤 재앙을 흉내 내었는가?
- 15) 이집트는 우리 삶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이집트에 억류된 이스라엘 후손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이집트에 머물렀다 2)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3)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 4) 모세 5) 이집트에 재앙을 6) 지팡이가 뱀으로 7) 아론
- 8) 백성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9) 재앙으로 위협 10) 10 11) 물이 피로
- 12) 개구리 13) 첫배 새끼가 죽었다 14) 1-2번째 재앙 15) 세상적인 지식수준
- 16) 세상속에 노예가 된 우리의 높은 본성

## 9

# 메추라기와 만나

### 머리말

본장에서 상기해 둘 사항은 과월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월절이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의 주님의 생애와도 깊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문 전의 이야기들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긴 여행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었던 과정도 기억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6장

16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썬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3.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4.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5. 여섯째 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차려 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이는 것의 곱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나?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 주어라.” 13.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힌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16.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19.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 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22.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이틀 분을 거두어 들었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23.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굶고 싶은 대로 굶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24.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26. 옛세 동안은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지마는 이제에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27.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들이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2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29.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30.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34.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 교리 요점

- \* 재구성이란 무엇인가?
- \* 거둬나지 못한 삶을 재구성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곤란은 무엇인가?
- \*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상응 공부

메추라기 = 선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만족  
 만나 = 영적인 선 또는 진리의 선 - 선함에서 오는 순수한 행복

### 해설

우리는 광야 여행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자아와 세상에 속한 삶의 상태 그리고 “거듭남”이라

불리는 삶의 상태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영적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 시대 때에 군림한 파라오의 지휘 하에 있는 이집트란 우리의 영적 가능성들이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에 노예화 된 상태를 표현해 준다. 모세는 우리가 지도자로 삼아야 할 주님의 법을 표현한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후손들을 떠나도록 허용하는데 확신하도록 했다. 또한 그것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과 모세야말로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느님의 대리자임을 확신하도록 해 주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한 땅으로 표현되는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적인 삶이 자신을 노예화시키는 스스로가 보고 깨닫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

과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저녁에 기념되었던 절기인데, 이는 우리가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바램이나 생각들로 이뤄진 사상체계를 버리고 주님께 의한 인도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은 재구성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접어드는 표시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삶이라는 거룩한 땅의 경계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법도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있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행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재구성이라는 시기를 표현한다. 이 재구성의 첫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한 후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시험이며 이를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결심이 진정으로 확고해지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는 승리 후 구름과 불기둥의 안내를 받으면서 시나이 반도 동쪽 해안을 따라갔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마라에서 그들에게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샘이 열 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서 그들에게 쉼과 새 활력을 갖는 시간을 주셨다.

개종이란 종교를 바꾸거나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개종이란 단어는 부흥회와 같은 종교 모임에 참석하여 갖게 된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때 흔히 쓰인다. 그러나 새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구원된다고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인간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가득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길로 향할 것을 결심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구원이 가능할까? 사실 이렇게 바꾼 방향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환이란 구원을 향한 기나긴 여행길의 한 점에 불과할 뿐이다. 구원의 길은 시험에 시험이 잇따르는 세월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하는

길고 고된 영적 여행이다. 우리는 이 여행에서 때로 승리를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뒤로 자빠져서 패배도 감내해야 하며 자주 실망하여 주님께 반역적으로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안내로 한 걸음씩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에 다가가게 된다.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는 썩 광야가 놓여있다. 이 광야는 그 이름의 뜻이 “진흙”인 것처럼 메마르고 뜨거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전환하여 삶의 패턴을 바꿔갈 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준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보내진 시점이 바로 이 때였다. 메추라기란 선을 행함에 따른 외적 만족을 표현한다. 외적 만족이란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려고 애쓸 때 이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랑해주고 경외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우리를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만족감은 단지 일시적인 부추김에 불과하다. 이것은 메추라기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정규적인 양식이 아니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에게 외적 만족이나 쾌락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만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나를 주시는 다양한 모습은 경이롭고 아름답다. 우리는 자신을 재구성해 가는 시기에 언제나 위를 보게 되는데 외적인 결과 이상의 어떤 것이 없으면 한결같이 위쪽만을 향하여 재구성의 시기를 견지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이 시기에 엎어지고 자빠져 코가 깨지는 체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나란 영적인 선으로, 스웨덴붉은 그것을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선” 또는 “영적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나?”라고 서로에게 물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탱시켜준 양식이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나 삶을 처음 대하게 될 때 그것이 여태껏 경험해 온 즐거움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주님을 섬기는 노력에서 오는 순수한 행복이 바로 만나의 맛이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만나를 날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수집해야 한다. 여기서의 아침이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자연계의 아침뿐만 아니라 각자의 새로운 심정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먼저 아침에 이슬이 땅위에 내리는데, 이는 각기 새로운 심정 상태가 새롭게 여겨지는 진리를 받음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후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여 힘을 얻도록 하는 내적 만족인 것이다. 그런데 만나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이는 우리에게 새롭게 여겨진 내적인 만족도 새로운 심정상태가 또다시 새로운 시험을 거치게 되면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에 힘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상기해보자. 시편 78편 25절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 양식을 거둬들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울바름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얼마만큼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지도 측정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경건한 흥미로 인해 도를 넘어 지나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0절에는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겨둔 만나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의 열심과 경건함을 넘어서는 말씀 공부는 오히려 그것의 분량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맛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만나를 수집하지 않았다’함은 우리가 일요일에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승리 후에 오는 쉼과 평화의 거룩한 상태이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6일간 노력한 것과는 달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버텨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재구성을 이루어 가는데, 이사야의 말처럼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나날이 보태어 정진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우리는 이를 깨닫고 영적 필요로움이 가득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하자.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무엇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했는가?
- 3) 주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그들이 썩은 광야에 접어들자 어떤 불평을 늘어 놓았는가?
- 5) 주님께서는 저녁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는가?
- 6)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7) 그들은 발견한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 8) 만나란 무엇을 뜻하는가?



- 9) 만나를 수집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 10) 만나를 수집하는 명령사항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1)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집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 13) 주기도문에서 만나를 상기하게 해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 14)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족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메추라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구름(불)기둥 3) 물을 가르심 4) 고기가 없다고 5) 메추라기
- 6) 싸라기 같은 빵 7) 만나 8) 이게 무엇이야? 9) 매일 한 오멜씩
- 10) 더 수집한 만나를 썩었다 11)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수집함 12) 40년
- 1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4) 재구성
- 15) 선을 행함에서 오는 외적 만족

## 10

## 성 막

### 머리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나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나이 지역에서 일 년에 관한 것과 그곳에서 이뤄진 것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과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응집시켜 주었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6장, 27장

26장: 1. 내가 살 성막은 피륙 열 폭을 들어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실과 자춧빛 양털과 붉은 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늬를 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2. 그 길이는 이십 팔 척, 나비는 사 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4. 나란히 이은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자춧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5. 한 쪽 끝에 붙은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6.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7.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열 한 폭이 되게 만들어라. 8. 그 열 한 폭은 길이가 삼십 척, 나비가 사 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남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여섯째 폭은 접어 올려라. 10.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다른 한 쪽 끝에 붙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그리고 놋쇠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여분으로 남는 천막 반쪽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일 척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14. 또 주홍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1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16. 널빤지 길이는 십 척, 나비는 일척 반으로 하고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우고 19. 그 널빤지 스무 장을 세울 밀받침 마흔 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꿸 밀받침 두 개를 만들어 놓아라. 20.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워라. 21. 그리고 은으로 밀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아. 22.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여섯 장을 만들어 세우고 23. 널빤지 두 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뒷면 두 귀통이에 겹세워라. 24.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두 장을 세워 두 귀통이를 벌려라. 25.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여덟 장에 밀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6. 아카시아나무로 널빤지들을 쉘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 성막 다른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도 다섯 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빤지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쉘 널빤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31.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룩 모양의 무늬를 놓아 가며 휘장을 짜라 32.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33.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35. 휘장 앞에 젓상을 놓고 젓상 맞은편 성막 남쪽 가에 등잔대를 놓고 젓상을 북쪽 가에 놓아라.

36.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라.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밀받침 다섯 개는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1. 아카시아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오 척, 나비 오 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삼 척으로 하여라. 2. 제단 네 귀퉁이에는 뿔 네 개가 돌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혀라. 3. 그을음받이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놋쇠로 만들어라. 4. 제단에 두를 놋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6.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혀라. 7.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9. 성막을 둘러 쌀 울은 남쪽 오른편에 길이 백 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백 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오십 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오십 척이다. 14. 그 정문 한 쪽 가에 밀받침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5. 다른 쪽 가에도 세 밀받침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6. 울의 정문에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천으로 이십 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8. 울의 길이는 백 척, 너비는 오십 척, 높이는 오 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쇠로 만든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9.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맡뜩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짠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1.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잔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의 휘장 밖에 켜 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 교리 요약

- \* 질서적인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 모든 개개인은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이다.

### 상응 공부

성막 = 주님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여 살아감  
 지성소 = 가장 깊은 심정  
 성소 = 생각들  
 성막울 = 바깥쪽 삶 곧 일상생활

### 해설

밑줄에서는 주님께서 성막과 그 안의 모든 설비를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누차 강조되고 있다. 서간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성막이 천국적인 인격의 모형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다(참조 히브리서 8:5).

성막은 세 구역 곧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계있다. 성막의 구조와 그 안의 가구들 그리고 제기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상징한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과 은 그리고 동(놋쇠)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자연적인 선으로 상응된다. 이 셋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을 성결하게 하며 통일화 시켜 그 인격을 떠 받혀 주게 된다.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된 커튼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계시록 19장 8절에서 해석해 주신 바,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의 근원은 무엇인가? 스웨덴붉은 이 모시가 천적인 근원에서 온 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가지 색, 즉 청색과 자색 그리고 홍색은 각기 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과 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그리고 영적인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속죄판 위에 있는 거룩들과 에덴의 동산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서게 된 거룩들은 모두 “천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옥에 의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려는 신성한 섭리를 의미한다. 염소 털로 짠 피륙이란 천국의 외부 또는 천적인 선의 겉모습을 의미한다. 수양 가죽은 진리들의 겉모습을 그리고 돌고래 가죽은 선들의 겉모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응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위의 용어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상응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심오한 의미를 표현해 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막 위에 씨울 덮개란 우리 속에는 동기와 생각을 옷 입혀 보호하는 높고 낮은 진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영감의 깊은 느낌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분석함으로 우리속의 동기나 생각의 복합성이 갖는 맥락을 파악하게 된다.

‘사용될 모든 나무가 금으로 입혀져 있다(26:29)’란 우리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게 되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의 진정한 인격의 건설에 쓸모 있게 하려면 그것들이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영화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외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나무)은 자아 만족을 건설하는데 사용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외에 필요한 밀받침, 고리, 기둥 그리고 가로다지들이란 진정한 인격이 확실한 진리위에 기초되고 전체가 하나로서 건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기되는 사항은 예루살렘 또는 바위위의 집은 “딱 짜인 도시로서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인 천국적인 인격은 삶을 배회함으로 형성된 일그러진 집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순간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규율되는 심정에 기초되지 않으며, 유명

인사나 철학자가 주는 그럴듯한 연설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천국적인 인격은 세상의 “그럴듯한 말”로 형성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26장 30절에서와 같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을 공부해서 형성해 놓는 인격이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인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2)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외에 어떤 다른 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 3) 성막이란 최근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 4)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 5) 성막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졌는가?
- 6) 성막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가?
- 7) 각 부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8)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9)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10) 성막 뜰의 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11) 성막 뜰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가?
- 12) 성막 건축에 쓰인 세 가지 금속은 무엇인가?
- 13) 각 금속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 14) 휘장은 무엇인가?
- 15)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가?
- 16) 성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막의 세 구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시나이산 2) 각종 규정이나 예배 방법 3) 천막 교회
- 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5) 동물 가죽 6) 3 7) 지성소, 성소, 성막울 8) 퀘

- 9) 젖상, 분향단, 등잔 10) 커튼 11) 물두멍, 제단 12) 금, 은, 동  
 13) 금은 나무를 썬는데, 은은 팽팽하게 하는데, 동은 받침으로  
 14) 내부 커튼 15) 유목민 16) 질서 있는 인간의 삶 또는 인격  
 17) 의지, 생각, 행동

## 11

###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 머리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도 망각하고 있었다. 본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 도전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 성서 본문: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6장: 1.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요, 할아버지는 크핫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2.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백 오십 명이 따라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5.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라. 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 향을 피워라. 그 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나? 10.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성직자직마저 요구하는가? 11.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13.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 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두시오? 14. 당신은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오? 우리는 못 가요.” 15. 모세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16.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오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17.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 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19.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20.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1.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22.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26.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27.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떨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28.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떨린 식구들과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1.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코라에게 떨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 버렸다. 33.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34.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35.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이백 오십 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1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 성직자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쏘아 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3.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가다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4. 성직자 엘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가다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씌웠다. 5.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는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6.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7.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 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8.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9.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 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12.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 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며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며 13.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14.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15. 염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 왔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매순간 우리를 떠 받쳐 주고 계신다.
- \*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판단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 \*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라는 격식을 차려서 존재되는 것도 아니다.
- \*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우리의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선행이란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 상응 공부

뽑힌 회중의 대표 = 첫째가는 진리나 개념

땅 = 자연적인 마음

향로 = 예배

향 = 기도

### 해설

본문의 사건의 잔혹성은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동안 계속해서 실망하며 불평해 왔음을 보았다. 열한 달 동안 시나이에 머무르면서 조직된 시민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들의 완전한 조직체계조차도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립된 현대국가에서도 쉽게 발견되며, 불만족과 반역은 어디에서

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허다한데, 우리는 자신이 즐기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충동이 어떤 제한을 교묘히 비껴나감으로 야기되는 과오를 흔히 발견한다. 스웨덴 북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직접적인 외부조건만을 고려하는 경향성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한다. 이 백성들은 오로지 그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나 처벌로만 인도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의 자유가 간섭되어도 괜찮았던 이유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마태복음 11:21). 이 구절은 그들의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았을 때의 실상을 보여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방향을 바뀌게 하시거나 그들 내의 사건을 지휘하셔서 역사 혹은 사건들이 상응에 의해 표현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본문의 사건 역시 기록된 바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상응적인 의미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세워 놓으신 질서에 대한 반역,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반대되게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에 반대되는 자신의 지혜 곧 선함과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대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 반역은 사실 광야 여행 동안 계속적으로 굶아 왔었고, 불평불만이 터트려져 나오기 전까지 그 세력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아주 유사하게 우리 인격 속의 이기적인 요소들도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서 조금씩 굶고 썩시다가 어느 특별한 일에 접하게 되면 공개적인 반역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코리는 레위지파였다. 레위지파는 성막의 일을 돌보도록 주님께 의해 분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성직자로서 집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은 코라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는 자신도 레위지파로서 아론 못지않게 선한 인격자라고 자부했던 것이다. 그는 아론을 공격하는데 모세까지도 신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지시 사항을 내리셨고 이를 다시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레위지파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며, 예배 속에서 우리를 관장하게 되는 우리속의 생각이나 애착을 말한다. 표현적인 인격 측면에서 대성직자 아론은 주님께에서 나오는 순수한 선함을 표현하고, 모세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받게 될 때의 순수한 진리를 표현한다. 코리는 우리의 예배 안으로 침투한 이기적인 동기들을 표현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교회의 임무를 수행해갈 경우 진정한 예배는 모독되며 우리의 전 인격은

그 결과를 받기 마련인 것이다.

반역을 네 가지 사항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이기적인 동기인 코라가 타인을 이끌고 있다. (2) 회중에서 뽑힌 이름 난 사람 이 백 오십 명은 우리의 추론을 통치하는 교훈들을 말한다. 그들은 모세 밑에서 자기를 돕도록 모세가 내세운 자들이었다. 스웨덴북은 코라가 모세에게 대항하도록 그들을 부추겨 모세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진리의 왜곡”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의미들은 제 3절만으로도 쉽게 납득된다. 즉, “당신들은 지나치오, 주님은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주님의 회중위에 군림하오.”란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주님께 의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이나 코라가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함으로 왜곡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믿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입증하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쓴다. 코라에게 합세한 이백 오십 명이 성막 앞으로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에서 나온 불은 그들을 태워 버렸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를 예배에 침투시켜 예배를 모독할 때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주는 주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 즉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사랑으로 변하게 만듦을 의미한다. (3)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본문 전에서 언급된 이들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이해성 안의 믿음”을 표현한다.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발달에 있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지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선한 삶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멈추거나 주님께 관하여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했던 인정은 실지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본문에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성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천막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는 하느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에 관해 배우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살게 되어 결국은 세상적인 사고가 그를 삼키고 천국의 빛이 차단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삼켜 “지옥”으로 내려가고 만다. 반역의 마지막 요소는 (4) 백성들이다. 말씀에서 백성(회중)이란 우리의 인격 자체가 표현해 내는 수많은 생각들을 말한다. 우리의 예배가 자아 사랑으로 모독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 자기 멋대로 방향을 잡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은 오염되고 만다. 만 사천 칠백 명이나 죽게 만든 엄병(scourge)이란 독선과 교만이 자신의 지성과 심정에 초래하는 황폐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재앙은 겸손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만이 멈춰진다. 향로란 예배의 상징물이다. 제단에서

나온 불이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며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코라와 기타 회중 대표들이 들고 나온 향로가 그들과 함께 멀해지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설령 우리가 우리의 동기들이 순수하지 못함을 발견했다하더라도 공적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됨을 뜻한다. 그 향로들은 두들겨 퍼서 제단에 썩워졌다. 즉,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켜 주님께 자신이 순수하게 바쳐지도록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했는가?
- 2) 코라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3) 레위지파의 직무는 무엇인가?
- 4) 아론의 직무는 무엇인가?
- 5) 코라는 왜 불만족했는가?
- 6) 코라 외에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가?
- 7) 이 두 사람은 어떤 지파소속인가?
- 8) 그들은 어디에 머물겠다고 고집했는가?
- 9)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 10) 코라를 지지한 어떤 다른 집단이 그와 더불어 성막에 왔는가?
- 11)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3) 계속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이 재앙은 어떻게 멈추었는가?
- 15) 다단과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16) 향로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코라 2) 레위 3) 성막과 예배를 돌봄 4) 대성직자 5) 아론을 시기함

- 6) 다단과 아비람 7) 르우벤 8) 그들의 천막 9) 땅이 삼켰다  
 10) 250명의 회중 대표 11) 불이 살랐다 12) 제단을 덮도록 만듦 13) 재앙  
 14)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15) “믿음만”의 결과 16) 예배

## 12

### 요르단강을 건너다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고리 역할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광야에서의 전투와 열 두 스파이(민수기 13-14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을 신뢰했고 모세에게 슬기로운 조언을 했음을 언급한다.

#### 성서 본문: 여호수아 3, 4장

3장: 1.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뻘을 떠났다. 요르단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2.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3.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성직자들이 너희 하느님 아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4.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궤에 하야라. 아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는 또 성직자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성직자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7.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8. 너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들 와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11.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12.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열 두 사람을 뽑아라. 13.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독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14.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성직자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15.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철이 되어 독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16.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갔다. 17.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4장: 1.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 두 사람을 뽑고 3.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성직자들이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 날 밤 목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여라.” 4.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낸 열 두 사람을 불러 모으고 5. 일렀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의 궤 앞으로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 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한 개씩을 메어 나오너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7.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일러 주어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일러 주어라.” 8.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 내다가 그날 밤 목을 곳에 세워 두었다.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복판에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성직자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성직자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12. 르우벤과 가드와 므나쎄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섰다. 13. 무장한 그들 사만 명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14. 그 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궤를 메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여라.” 17. 여호수아가 성직자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18. 야훼의 계약궤를 멘 성직자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19.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가에 진을 친 것은 정월 십일이었다. 20.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가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묻거든, 22.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밟을 적시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23.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바다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 주시지 않았느냐?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이다. 24.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 교리 요약

- \* 우리가 옳은 길로 정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 \* 계명들은 우리의 지침서이며, 모든 어려운 결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 \* 주님을 신뢰함이 신앙의 시작이다.
- \* 의를 행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거듭나는 상태의 시작이다.

### 상용 공부



요르단 = 우리에게 천국적인 삶을 소개해 주는 진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에 장애물로서의 요르단 강 = 악에서 나온 거짓들  
돌 = 기초가 되는 진리들

## 해설

우리는 본문과 더불어 광야 여행으로 그려진 “재구성”의 시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 주님이 지시하신 질서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맞추는 일이 이토록 힘든 임무가 되어버린 까닭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 동안 여물어진 세상적인 표준이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항거해 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인들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억지로 따라야만 했던 때 그들이 모두 광야에 뼈를 묻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후손들은 요르단 강 근처에 있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진영이 될 곳에 도달하도록 허용되었다. 요르단 강가에 진을 치게 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자라 광야에서 성장했던 이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다. 모세에게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거룩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그는 그 산에서 죽게 되어 거룩한 땅에 발을 딛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모세란 주님의 법에 순종하되 단순한 원리로 순종하는 것, 즉 맹목적인 순종을 상징한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행동뿐인 억지 순종은 반복된 연습을 거쳐 습관이 되면서 기쁨을 가진 진정한 순종으로 변해 가는데, 이러한 진정한 순종의 시작이 바로 실제적인 거듭남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속의 악들을 찾아내어 극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사실 행동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보다 자기 속의 적들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임무는 거듭나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필수요소들이다.

성경상의 모든 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양면적인 상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간의 영적인 진보에 우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행동과 삶에 대한 평가는 바깥쪽 표현에 해당되는 행동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루게 하는 내적 존재인 동기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주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되어 계명을 지킨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가 타인이 자신을 선하다고 인정하여 그로 인한 명예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바람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음을 광야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줄거리에서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요르단 강은 인간의 모든 평면을 거쳐 아주 낮은 평면에까지 흘러내리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하나, 본문에서의 범람하는 요르단 강은 이 진리의 반대측면을 그려주고 있다. 요르단 강은 거룩한 땅의 경계에 해당되는데, 이강이 표현하는 단순한 진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삶의 천국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땅은 이미 악한 자들로 가득 해 있었고 요르단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우리속의 깊은 악들 곧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억측하는데서 비롯되는 각양각색의 거짓들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마음속의 거짓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케를 멘 성직자들이란 우리의 지도자요 보호자로서의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재편성을 마치고 종교적인 원리로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도록 명령되었고, 그들이 강물로 나아가자 그들 앞에서 범람하던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들이 강 한복판에 굳건히 서 있는 한 백성들, 즉 우리속의 애착들이나 생각들은 거룩한 땅 곧 천국적인 삶으로 안전하게 진입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땅에는 부딪쳐야 할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일단 경계선을 건너면 천국적인 삶을 이루는 확실한 발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이 스스로를 선한 인격으로 만들겠다는 첫 결심 곧 주님의 법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그려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은 자신속의 나쁜 습관들과 싸우며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의 바른 질서로 갖다 놓는 것으로서 길고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나의 긴 수행을 마치고 또 다른 강물의 장벽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선한 삶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진정으로 즐기려면, 우리는 다시 우리속의 심정과 지성 내에서 자라고 있는 적들과 대적하며 오랜 세월동안 싸워야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여호수아의 첫 행동은 강을 건너게 해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강에서 메어낸 돌 열 두 개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다. 열 두 개의 돌이란 자비로우시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권능을 결코 잊지 않도록 거듭나는 삶의 시작 초에 우리 마음에 확실히 인식해 두어야 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세계의 삶에서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의 결실을 맺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뛰어난 재주나 명석한 두뇌로 인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스스로가 훌륭한 인격자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성공의 영예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2) 누가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 받았는가?
- 3)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졌는가?
- 4)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지는 어디인가?
- 5) 그들은 한 해의 어느 철에 마지막 진영지에 도착했는가?
- 6) 거룩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
- 8) 여호수아는 강 한복판에 무엇을 세웠는가?
- 9) 거룩한 땅에서의 첫 진영지에 무엇을 세웠는가?
- 10)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 11)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12) 왜 그렇게 불렀는가?
- 13) 그곳에서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요르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느보산
- 2) 여호수아
- 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 4) 예리고성 반대쪽
- 5) 수확 철
- 6) 요르단강
- 7) 기적으로
- 8) 열 두 개의 돌
- 9) 열 두 개의 돌
- 10) 강을 건넌 기적을 회상하라
- 11) 길갈(굴림, 벗김)
- 12) 이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기 때문
- 13) 과월절, 할례식
- 14) 싸우는 진리
- 15) 영적인 삶을 소개하는 진리들

# 13

## 기브온 주민들

### 머리말

본과 이전에 강조되었던 사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적들로 가득 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리고의 함락과 아이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도 간략히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9장

9장: 1.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2.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4.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털너털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현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미를 차렸다. 5. 또 밭에는 닳아빠져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9.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고

10.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디롯에 사는 바산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11. 우리 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딱딱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13.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4.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15.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키랏여아림에 이르렀다. 18.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19.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20. 우리는 그들을 살려 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21.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 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22.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27. 그 날로부터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된 것이다.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신다.
- \* 말씀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 \* 우리의 순종은 곧 믿음의 척도이다.
- \* 우리는 실수로 인한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경험삼아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 상용 공부

빵 = 영적인 선

가족 포도주 부대 = 교리들

겉옷 = 우리의 애착을 옷 입고 있는 진리들

### 해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다시 진입했을 쯤에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적들로 가득 해 있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항은 말씀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땅에 있었던 국가를 거론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선사시대의 교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짐작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즉, 태고교회에서 출현한 거인들이 아직도 그 땅에 있었던 것과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이 고대 말씀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창세기 10장 15-18절의 족보들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거룩한 땅 밖에 있었던

나라들과 민족들의 선조들은 성경에서 보면 역사시대인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 이유는 거룩한 땅 밖의 국가들이란 우리가 성장할 때 주위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악들을 상징하고, 거룩한 땅 내의 국가들이란 유전성 속에 든 악 곧 우리 내부의 악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 있는 악들을 모두 파괴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게서 악들에 대한 정복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발밑에 두게 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며 심지어 그것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발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본문속의 기브온 주민들은 퇴보된 고대교회의 잔류 중에서도 가장 양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인 히위족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지식을 사랑하며 그 지식을 선용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의 어린 시절에 두드러져 나타난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만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사랑함이 영적인 진보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절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며, 환경이나 조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유로 기브온 주민들이 주님의 제단의 일인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회중을 섬기는 동안 그들의 생명이 유보되었던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 그를 속이려고 꾸민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속임수이나 그것들의 상응적인 면에서는 순수한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에 흠뻑 빠져 있어 종교와는 근절된 한 과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최대한 몰두하여 자연계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죽을 때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타인들에게 남기고 간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견이 선하게 혹은 악하게 쓰이는지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가 어린 시절 주님께 가까웠을 때 가졌던 순진한 선함이 막 구워 가지고 나온 딱딱딱딱하고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표현된다면, 그가 죽을 무렵의 빵 곧 그의 선함은 말라서 바삭바삭해져 맛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 없이 부드럽게만 느꼈던 그의 양심은 이제 너털너털하게 기운 현 가죽 술 부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법은 낡아 헤진 옷으로 표현되며, 세상적인 편리 주의로 일관된 그의 신발 역시 닳아빠져 기운 낡은 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유아기인 먼 나라로부터 긴 여행을 마친 사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의

노동의 결과는 영적인 삶을 섬기게 만들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메마른 과학자 역시 우리의 정신적인 나라 안에서 보면 정상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흥미의 추구가 세상적인 지식인 과학, 예술, 사업, 사회단체, 스포츠 또는 심지어 성경 교재에서도 인간의 영적 생명에 선용되려는 것에서 떼어져 있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빵은 우리 속에서 메말라지고 우리의 종교 원리들은 부스러져 산산조각 나며 살아가야 함에 대한 지식들마저 진정한 용도에서 빛나가 하강하게 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얻고자 애쓴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해 버리고 그러한 지식이 우리속의 보다 높은 특질을 섬기는 하인 역할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이 속임으로 인한 것이니 파기해야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살려두셨으나 그들에게 알맞은 임무를 주어 지키도록 하셨다. 제 10장을 보면 기브온 주변 국가들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때 또는 차후에 자신의 약점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통제 하에 잘 배치하여 마무리 짓는다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결과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길갈에 무엇을 세웠는가?
- 2) 길갈에서 이스라엘족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 3) 거기서 그들의 음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거룩한 땅 내의 적들 중 누가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원했는가?
- 5)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 6) 여호수아는 어떤 측면을 소홀히 했는가?
- 7)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 8)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조약을 파기했는가?
- 9)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가?
- 10) 이 이야기에서 약속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 11) 기브온 주민의 선조는 누구인가?
- 12) 그들은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그들의 ①헤어진 옷 ②말라서 바삭바삭해진 빵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열 두 개의 돌 2) 과일절 3) 만나가 중지됨 4) 기브온 사람들
- 5) 먼 나라에서 온 채했다 6) 주님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 7)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8) no 9)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라
- 10) 약속을 성급히 하지 말라 11) 히위족(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온) 12) 지적 호기심
- 13) ①행동지침의 생각 ②영성(spirituality)

## 14

### 판관 「입다」

#### 머리말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정복과 각 지파별 할당부분을 언급한 후 판관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에서 강세를 얻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입다의 성급한 서약과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과 체결한 성급한 조약도 비교해 본다. 입다의 딸에 관련된 사건은 5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11장

11장: 1.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하면서 그를 쫓아 내었다. 3.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돕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떼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4.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5.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6. 그에게 청했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7.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요?”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9.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재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 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단 말이지요?” 10.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11.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 곳은 미스바였다. 12.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 왔는가?” 13.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14.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15.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17. 에돔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19.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20.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21.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를 몰아내겠다 말이나? 24. 너는 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나? 25. 모압 왕 시뿔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촌락,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촌락, 또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잡고 산지도 삼백 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27. 나는 너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 된 일이나?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28.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인 입다에게서 온 전갈을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다. 29.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나쎄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다. 30. 거기에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31.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 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33. 아로엘에서 민닛 어귀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뎀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35.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찌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쩔단 말이나!” 36. 그러자 딸이 아뢰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런 면 어떻습니까?” 37.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벼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 가 돌아 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38. 입다는 두 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두 달 동안

딸은 벗들과 함께 산에 들어 가 처녀로 죽는 것을 한하여 실컷 울었다. 39.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가지 관습이 생겼다. 40.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 교리 요약

- \*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흥정할 수 없다.
- \* 말씀의 영적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때가 있다.
- \*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자신의 원하는 바와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함도 포함된다.
- \* 선행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한다.

### 상용 공부

판관 = 말씀에서 비롯된 특별한 용도를 가진 진리  
길르앗 = 바깥 삶에 있는 선

### 해설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기이하고, 금기해야 되는 어떤 사항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판관기서는 거룩한 땅의 소유권을 장악한 때로부터 유대국가로의 발달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완충 지대적인 시기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보면, 이 시기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 발전에 대한 아주 큰 것, 즉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거룩한 땅의 정복이란 정식으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시기를 표현한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란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유전적으로 받은 우리속의 각종 악함과 악들을

열심히 발견하면서 극복해가는 상태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후 그들은 그 땅을 제비뽑아서 각 지파에게 할당했고, 각 지파들은 제각기 자기들 땅으로 가서 그 땅의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적들을 소탕하도록 명령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이나 내면에 든 악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열매를 즐기기 시작하는 때를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우리가 많은 시험들을 치러야만 완전해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획득한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우쭐해져 장차 오게 될 시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다. 즉, 우리는 이러한 자기 과신이 우리의 위험 신호등에 불이 깜박거리는 것과 같음을 모른 채 방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한 후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판관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남쪽 지역 지파인 유다와 시므온은 그들 영토내의 적들을 완전히 소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선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외의 지파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를 이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으나, 그들이 모두 떠난 후에는 그분을 잊고 가나안 주민들과 혼합되어 결국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한 후 시작된 첫 열정이 매일 닦치는 세속에 휘말릴 때 얼마나 쉽게 식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속에 시달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행동 하려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여 결국 세상이 그러하듯이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영적인 삶 대신에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가 과거에 극복했다고 생각한 우리속의 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어느새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바로 거룩한 땅의 곳곳에서 하나씩 고개를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힘에 억눌릴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 때마다 그분은 일이 터진 지역에 판관을 들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적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판관들이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분께서 특정한 시험들과 직면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들어내 쓰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길러진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특수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땅은 요르단 강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게 놓인 지역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요르단 강 동쪽의 계곡 역시 거룩한 땅 내에 속한다. 그곳은

오래 전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할 때 살기로 선택한 비옥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고 유쾌한 것을 가진 부분, 즉 자연적인 평면을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적인 평면이 많은 시험들을 갖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 하에 거룩한 땅 근처까지 접근했을 때 그들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땅은 지나쳐 갔으나, 바산의 거인왕인 옥과 시혼을 정복함으로써 아모리 사람들로 부터 계곡을 빼앗았다. 그 때에 르우벤과 가드지파는 요르단 건너 서쪽 대신에 그 지역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용사들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돕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락해 주었다.

므나세 지파의 반쪽도 역시 “요르단 건너”지역에 정착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부분은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스웨덴북은 길르앗이 처음에 있어진 선함 또는 육체의 감각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선남선녀가 되고 주님께 순종하며 이웃에 친절을 베푸는 인격이 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높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도 많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자연적인 천국에 거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그들은 더 높은 천국이 있음을 알지만, 그들 스스로 더 높은 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입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 바로 자연적인 천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길르앗 지역이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었고, 입다 이전의 판관인 야이르 역시 그곳 출신이었다. 하지만 야이르에 관한 언급은 그가 이십 이년간 판관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야이르와 입다는 판관들 중에서 거룩한 땅 안에서 들어 세우지 않은 자들이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곤경은 길르앗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며, 야이르는 입다와는 다른 곤경이 발발할 때 있었던 판관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거듭남을 시작한 후 싸워야 하는 적의 대부분은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적으로, 우리 속에 든 유전적인 악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룩한 땅 밖에 있는 길르앗의 곤경은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본문에서의 적은 암몬족이다. 암몬은 롯의 두 아들 중 하나이다. 암몬족은 우리가 자연적인 선 안에만 머물러고 하여 발생하는 악에 쉽게 이용당한다는 것과 진리를 쉽게 왜곡시켜 버리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한다. 암몬족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쌓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부와 행복을 쟁취하여 그것에 푹 빠져들면서 선의 표준을 세상적인 행복에 두게 되면,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까지도 세상적인 표준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맹점은 선행을 베풀에 있어서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베풀다는 것이다. 스웨덴봄은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고 있는 자는 악한 자들에게 베풀 선이 결국 그들의 악을 부추기는 것임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칼을 빌리러 왔을 때 그것을 빌리러 온 이유와 사용목적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 않고 그것을 빌려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어 그냥 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서 빌려간 칼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과 같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강도질과 같은 것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봄은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선한 자에게 악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판관으로서 입다가 상징하는 바는 주님께서 진리를 거짓 해석하는 것을 반박하시기 위해 우리 지성 속에 세우시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이다. 누가복음 6장 27-36절은 진리가 거짓되게 해석되는 성경 부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34절의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꾸어준다”라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부분이다. 입다는 창세기 28장 21절의 야곱처럼 자신이 주님과 흥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30절에서 알 수 있는 그의 분별없는 서약이다. 그는 선을 행하되 자신에게 오게 될 공적과 보상을 바라며 그것을 행했다. 수차례 살펴본 바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 곧 자신에게 올 보상이나 공적을 바라면서 선행을 시작한다. 우리가 요르단 강을 건넌 상태, 즉 거듭나는 상태에 있다면 이런 것쯤은 뒤에 남겨 두어야만 할 것이다. 입다의 이야기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선의 근원이 자신인 듯 착각하게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애착, 즉 자연적인 것(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삶의 표준을 두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애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다. 입다가 승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제일 먼저 그를 맞는 외동딸의 모습은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의 승리에도 환호하며 자축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러한 자축의 분위기를 마음에서 느끼게 될 때 그것을 즉시 포기해야 함을 인식한다. 변제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선함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 곧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속의 자연적인 것들의 반항을 내려 놓아야만 한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실컷 우는 외동딸, 즉 제물이 되는 외동딸로 그려지고 있다.

###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3) 본문의 판관은 누구인가?
- 4)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5)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6) 입다는 무엇을 서약했는가?
- 7)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올 때 처음 환영 나온 자는 누구인가?
- 8)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노력했는가?
- 9) 그녀는 어떤 요청을 했는가?
- 10) 이로 인해 어떤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가?
- 11)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백성들이 주님을 잊었다 2) 판관을 세워 주셨다 3) 입다 4) 요르단 건너편 5) 암몬
- 6) 자기를 환영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바침 7) 입다의 딸 8) 노력하지 않았다
- 9) 두 달간의 여유 10) 해마다 사흘씩 곡함 11) 필요성을 만날 특별한 진리



## 15

###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때의 백성들과 판관시대 백성들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본문 이전의 내용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4장1-11절, 5장, 6장 1-16절

4장: 1.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에벤펠에 진을 쳤고 블레셋군은 아베펠에 진을 쳤다. 2.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사천 명이나 되었다.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다.” 4.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뿔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였다. 5.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6. 불레셋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7. 불레셋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8.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 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9. 그러니 불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 사나이답게 싸우자!” 10. 이리하여 불레셋군이 짓쳐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으며 11.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5장:1. 불레셋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펠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2. 불레셋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3.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웠다. 4.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성한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게 구르고 있었다. 5.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성직자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6.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 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7.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불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겼다. 9.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나?”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11. 그래서 그들은 불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때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2.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 야훼의 궤가 불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지 칠개월이 지났다. 2. 불레셋 사람들은 성직자들과 점장자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죄제물을 얹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면죄제물로 무엇을 얹어 보내야 합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 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다섯 개, 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불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5.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6.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멩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쪼먹이 송아지들을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8.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9.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11.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12.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 갔다. 불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 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13.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14.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멧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 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 그 날 블레셋의 다섯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 교리 요약

- \*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 \* 말씀의 진리는 쌍날을 가진 검이므로, 선한 이는 보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파괴한다.
- \* 사랑과 선한 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 \* 우리는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상용 공부

블레셋 = 삶이 없는 지식

다곤 = 자기 총명에 빠진 자만

종기 = 표면에 나타난 내부의 불순함

쥐떼 = 작은 악들, 특히 감각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악들

### 해설

관관시대란 연극 공연에 비유하면 제 일 막이 끝나고 제 이 막으로 넘어가는 때에 잠깐 있어지는 막간(interlude)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막간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본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심에 폭 빠져 주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이로 인해 무관심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멸망해 버리는가 하는 양 갈래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기로에 서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길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다. 즉, 그분은 관관기의 마지막 관관이 될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성막의 진정한 예배를 오염시킨 두 성직자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허용한 무기력한 대성직자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경고하셨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견된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게 집행되었는데, 본문에서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궤에 관한 역사이다. 궤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를 빠져나와 시나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올바른 국가질서와 삶의 체계를 위해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계명들이 적힌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자로서 성막의 지성소에 늘 보관되도록 명령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다. 궤는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요르단을 건너 예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동안 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가르침의 근원으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의해 거룩한 땅의 중심지역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정규적인 예배가 건립된 후 궤는 그곳에 정착했다. 여호수아가 지은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던 점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는 영구적인 설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성막은 많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이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야기로만 보자면, 그것은 3천년 이전에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벌어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이 이야기와 우리의 삶이 가지는 중요한 연관성을 상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여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열심히 배웠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좋은 조건을 모두 가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충실하며 신앙심도 깊으니까 장래에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가정을 떠나 독립된 삶을 꾸려나가야 할 때를 맞게 되어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들로 매일 바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이 몸담은 사회조직에서 친구를 사귀며 그곳에서 삶의 즐거움과 성취감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충실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년에 단지 몇 번 얼굴을 비치는 정도로 교회생활을 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살면서 자신과 연계된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모방하려고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블레셋 군이 공격할 적절한 때가 되는 것이다. 블레셋 족이란 자신이 아는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시험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악에 저항할 힘을 이미 예전에 잃어버렸음을 갑자기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신실한 삶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삶과 그 속에서 있었던 안전함을 회상하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케를 기억해내는 모습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상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과 안내를 받고자 성막에 있는 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달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터로 케를 가져오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그릇된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잘못을 회개하려는 성의 없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비롯된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동지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지원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군과 같은 신세가 된다.

이스라엘 군은 결국 케를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것은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켜지지 않는 계명은 단지 우리 기억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흡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케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역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다. 우리가 계명이 순종을 전제함을 믿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생명도 없게 된다.

결국 실로에 있는 성막은 안이 텅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구약성서에서 케는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심장이다. 그래서 케의 여행은 변화하는 우리의 심정상태에 관한 것들을 표현한다. 케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란 우리가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순수하게 바랄 때를 의미한다. 케가 안치된 여러 장소들이란 신성한 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케를 소홀히 대할 때란 우리가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케를 블레셋 군에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는 주님의 명령을 떠넘겨 쥐머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케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뿌렸던 것으로 표현된다. 그 이유는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계명에 대한 지식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다곤 신상이 땅에 곤두박질해진 채로 발견된 것은 계명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의 자만이 비틀 거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피상적임을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해줌을

의미한다. 다곤 신상의 몸은 물고기이었으나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은 부러진 채 굴러 다녔고 오로지 물고기의 모습인 몸만 성할 뿐이었다.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냉혈동물인 고기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식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말한다. 하지만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즐거움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명히 실감하도록 해준다. 즉, 바다의 고기는 잡아 올려져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여야하는 것이지 인간이 바다의 고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가 돌았고 쥐페로 인해서 그들의 작물이 못쓰게 되었다. 이것은 계명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몰랐던 악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속의 이기적인 탐닉이 우리를 여태껏 건강하게 지속시켜준 우리 안의 선한 것들까지도 먹어 치우겠다고 입맛을 다시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궤가 재앙을 내려서 진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궤를 블레셋 영토 안에 잡아두려고 이리저리 궁리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블레셋 족장들이 그들의 영토 내 큰 성읍들 이곳저곳으로 궤를 옮겨 보관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재앙은 궤가 옮겨지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까지 많은 세월과 역경들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갖은 고생과 곤경을 겪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계명을 준수함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진실로 알게 된다. 새 수레는 이러한 과정으로 있게 되는 계명에 대한 생각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준다. 그리고 두 암소는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원리로서, 계명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새로운 행동지침이 곧 수레를 끌 암소인 것이다.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벧세메스쪽으로 걸어가는 소가 내는 울음소리란 이젠 더욱 쉬울 것 같고 더욱 기쁨이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것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상징한다. 금종기와 금종기의 형상은 이기적인 동기를 이타적인 동기로 대체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숫자 다섯이란 "비록 적긴 하지만 그래도 넉넉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동기가 바뀌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상태보다 훨씬 나은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궤는 단계별로 그 섭리를 진행시킨다. 처음 단계에는 환영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제물을 필요로 한다.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속의 심정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도록

해 줄 때, 계명은 우리가 만끽한 이기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통행료를 징수한다.

###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3)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냈는가?
- 4) 케를 성막에서 끌어낸 두 성직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5) 케는 어떻게 되었는가?
- 6) 케와 같이 있던 불레셋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났는가?
- 7) 불레셋 사람들은 결국 케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8) 누가 불레셋 사람에게 케를 돌려보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9) 케는 어디에 실려 되돌려 보내졌는가?
- 10) 케와 더불어 무엇이 보내졌는가?
- 11) 케는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 12)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왜 불레셋은 케를 간직할 수 없었는가?
- 14) 새 수레와 어미소는 무엇을 그리는가?
- 15) 불레셋의 점쟁이는 케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어떻게 알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팔레스타인 3) 케를 전투지역에 가져다 놓기로 함
- 4) 죽었다 5) 빼앗겼다 6) 그들 신이 부서졌다 7) 케를 되돌려 보내자
- 8) 성직자와 점쟁이들 9) 새 수레 10) 다섯 개의 종기와 쥐 11) 벳세메스
- 12) 순종 없는 지식 13) 재앙이 계속 있으므로
- 14) 새로운 자세, 새롭게 된 애착 15) 상응지식으로



## 16

# 사울과 요나단

###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격과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신체적 강함과 용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차후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4장 1-46절

14장: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불레셋 초소로 가자”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 그 때 사울은 육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3. 실로에서 야훼의 성직자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톱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모셔 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4.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변에게 일렀다. 6.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었느냐?” 7.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변이 이렇게 말하자 8.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9.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게 섰거라’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 가지 말고 10.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 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불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불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하면서 12.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 줄 게 있다”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변에게 “나만 따라 올라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하고는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그의 무기당변도 뒤를 바짝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불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변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발을 반 이랑 갈아 젖히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15.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16. 베탄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불레셋군이 갈광질광하는 것을 보았다. 17.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내어라”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이 보이지 않았다.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 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19. 사울이 성직자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불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성직자에게 “그만두어라”하고는 20.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21. 이제껏 불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22.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불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23. 이렇게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베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24. 그 날 이스라엘군이 하나 둘 모여 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헤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25. 마침 거기 들에는 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26.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풀이 툇툇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28.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29.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풀 한 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30.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불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그 날 이스라엘군은 불레셋을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32.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 썰어 먹어 버렸다. 33.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 썰어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느님을 배반 하였구나”하면서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34. 그리고는 전군에게 흠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 썰어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불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성직자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고 제의하였다. 37. 사울은 하느님께 여쭙었다. “불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시지 않았다. 38.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 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0. 사울이 온 이스라엘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하고 대답하자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뭇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을 풀려났다. 42.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하고 선언하였다. 45.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 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 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46. 사울은 불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불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 교리 요점

- \*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이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을 즐기는 우리의 안목을 좁게 하여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들을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왕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 \*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사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일구어낸다.

### 상응 공부

왕 =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  
요나단 = 경험에서 얻은 지식  
꿀 = 즐거움

## 해설

우리는 판관기서에서 자기 과신이나 자만심 속에는 위험만이 잔뜩 도사릴 뿐 아무런 선도 없음을 거듭하여 여실히 보게 된다. 그래서 판관시대는 열왕시대, 즉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왕들은 지배하는 원리를 상징한다. 따라서 선한 왕은 진리에서 비롯된 원리를 표현하고 악한 왕은 거짓에서 비롯된 원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자신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준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접근되는 제반 문제들을 헤쳐 나간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 들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방향을 결정함에 만족했던 과거동안 그들이 이뤄놓은 결과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권 체제하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이해시켜 주라고 이르셨다. 사무엘의 통치는 어린 시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단순한 순종과 신뢰의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가 이 상태 하에 있으면 보다 안전하며 시련을 덜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짓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이런 사무엘의 통치에 만족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자유와 합리성을 충분히 활용하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여 반복되는 실수를 초래하거나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사무엘에게 점지해 주셨고, 그 후 사울은 모든 백성이 참가하는 제비뽑기에서 선택되어 왕이 되었다. 사울은 당시 백성들이 원하던 전투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이끌 왕으로서 적격인 사람, 즉 패기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자였다. 이러한 사울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여 그것을 해결하는데 보다 성급하고 호전적인 자세에 부응되는 진리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앞에 부각되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사울역시 왕으로 추대되었던 초기에는 사무엘을 통해 오는 주님의 지시에 진지하게 순응하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을 가졌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안내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겸손해 하려고 함과 유사하다. 사울은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다. 「판관 입다」편에서 살펴본 바대로, 암몬족이란 우리가 부딪치는 시험 중 내적인 측면보다 외적인 측면의 시험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울의 자만심은 이 승리로 인해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투에서 사무엘의 지시를 이행하려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전투에 임했다. 이러한 사울의 오만함은 주님과

그의 연결고리를 끊게 했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진리로 삶을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의 첫 생각은 자연적인 이성에서 기초하는데, 이 생각 역시 얼마간의 순수한 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적 수준의 이해력은 기억 속에 든 지식에 불과했던 주님의 진리가 삶의 체험에 의해서 그분만이 진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입증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는 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적극적이었으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특성은 제 6절에서의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었느냐?”라는 구절로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공격할 때에 대한 결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요나단의 작은 승리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혼비백산 되어 서로 치고 받는 아수라장을 이루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의아한 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현상을 그려 주고 있다. 우리가 ‘남들도 다 이런 식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시험에 휩쓸려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에 기운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나 기타 예증으로 세상적인 논쟁에 반박할 용기를 갖게 되면 우리를 끼우뚱하게 하려던 세상적인 논쟁의 구조가 모두 비틀리게 되고 결국 그 논쟁의 방어벽이 허물어져 혼동에 빠지게 된다. 즉, 거짓은 진리를 만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낸 다는 것이다. 거짓의 진정한 정체는 다름 아닌 혼동이며 불확실함이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다. 그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여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꿀이란 자연적인 수준의 즐거움 또는 쾌락을 표현한다. 꿀은 말씀 안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음식이다. 요나단이 맛본 꿀은 자신의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을 표현한다. 이런 만족감이라는 느낌에는 자아가 들어 있어 말씀의 글자 상에 있는 주님의 명령 중 어떤 사항은 정반대의 뜻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 말씀의 글자를 읽게 될 때에는 글자대로의 해석이 진정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본문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심정상태를 위해 필요한 만족감을 얻는 순간을 우리의 상태를 감안하셔서 얼마만이라도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열정이 강한 초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하나 오히려 강한 열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어려운 길을 만들게 되기도 하는데, 본문의 사울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진실로 선을 행하려는 자는 타인을 고달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명령을 철회하라고 청원했던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초대 왕이었는가?
- 2)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 3) 그는 어떤 적과 처음 싸워 승리했는가?
- 4) 사울의 약점은 무엇인가?
- 5) 어떤 적이 그를 괴롭혔는가?
- 6)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달랐는가?
- 8)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9) 왜 요나단은 둘이서도 적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 10) 어떤 곳에서 그들은 적과 접전했는가?
- 11) 요나단은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2) 요나단의 습격이 승리하자 블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 14)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 15)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16) 누가 요나단을 구했는가?
- 17) 성경에서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요나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울 2) 키가 크고 힘이 세계 보여서 3) 암문족

- 4) 성급하고 불순종적이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5) 불레셋 6) 요나단
- 7) 주님을 신뢰했다 8) 불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9) 믿음 10) 가파른 바위
- 11)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말하면... 12) 공포에 휩싸였다 13)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 14) 꿀을 맛보았다 15) 죽이려 했다 16) 군인들 17) 통치하는 원리
- 18) 경험에서 온 지식

## 17

#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 머리말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강조되며, 다윗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 그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짜의 죄와 벌은 본문에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지만,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성서본문: 사무엘하 6장

6장: 1.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소집했다. 2. 다윗은 이 전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느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궤는 거룩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우짜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야효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 5.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6.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7. 야훼 하느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8.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베레스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 다윗은 그 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궤를 모실 것인가”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궤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 들이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11. 야훼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 둔 석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2. 오베데돔의 집에 하느님의 궤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 왔다. 13. 야훼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진 황소를 잡아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 왔다. 16.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 올 때 다윗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 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17.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 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18.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9. 그리고 모여 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개, 마른 대추야자 한 뭉치, 건포도떡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22.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 교리 요점

- \* 잘못된줄 알고 저지른 행동은 죄이다.
- \* 우리에게 “자연적인 수준”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
- \*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며 인간의 바람에 맞춰서 해석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 \* 우리는 시험을 추론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 상응 공부

텐트 또는 성막 = 사랑으로 예배함

이스라엘의 적들 =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

### 해설

본문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울 왕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을 통치해 가는 원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어 우리 안에 이뤄지는 진리에 대한 첫 개념을 상징한다. 이 첫 개념의 대부분은 사물의 외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기 확신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특성을 지닌다. 어떤 이들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로서의 요나단은 내적인 경험보다 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신뢰는 우리가 더 깊고 영적인 것을 신뢰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종류의 신뢰는 아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사랑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관계의 표본으로 회자된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하는 아버지 사울의 시기심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내어 일시적이긴 하지만 망명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울과 요나단 모두 죽어야 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몰라. 그걸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은 나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야.”라고 말하는 믿음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진정한 신뢰에 기초를 두고 주님께 순종함이 바로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앙에 계명이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함을

그러준다. 퀘는 한번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뒤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되지 못했다. 블레셋이 퀘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낸 뒤 처음에 퀘는 벧세메스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키랏여아림, 즉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바알라(여호수아서 15:9 참조)로 옮겨진 후 계속 그곳에 머물러있었다. 키랏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지역이다.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때에 퀘가 모셔졌던 본래의 성막은 레위인들의 성들 중의 하나인 기브온으로 옮겨졌는데, 그 성막은 솔로몬 초기 통치까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법궤를 키랏여아림에서 옮기려 한 다윗의 시도는 재난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는 그가 법궤를 수송하는데 따른 적절한 방법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가 이동될 때는 언제나 레위 인들이 고리를 사용하여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지하려면 정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에 퀘를 얹었다. 황소가 끄는 수레란 우리의 자연적인 선한 애착의 힘이 끌어당기는 생각의 체계를 묘사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연적인 선한 애착에 대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직함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격언이다. 이 격언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격언은 우리의 행동이 근원인 동기가 되는 데는 부적당하다. 본문을 보면, 소가 뛰어서 수레를 흔들리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연적인 애착은 가끔 계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명을 이리저리 재보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그토록 케케묵은 계명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갖는 신성한 권위에서 발견하려는 대신 자연적인 이성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흔들리는 퀘를 잡으려고 손을 댄 우짜의 모습이다. 인간적인 이해성에 기초하여 우짜의 행동을 추론하면 그것은 잘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추론이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간적인 것은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잘 알고 있다. 우짜는 레위 인으로서 퀘가 흔들릴 때 자신이 붙잡지 않더라도 그것이 떨어질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레위 인들은 성막과 퀘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가 퀘에 손을 댄 것은 퀘에 대한 평소 그의 태도와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즉, 그는 퀘의 신성한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퀘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퀘의 신성을 무시했고 자신의 힘에 더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를 죽게 만든 원인이다. 주님을 무시하고 자아와

세상에 의존함은 결국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법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두 번째 시도는 매우 겸손한 가운데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 즉, 궤를 레위 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자연적인 인간과는 정 반대된다. 사울의 딸 미갈은 자연적인 인간의 속성에 기울이려는 애착들을 표현한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있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를 피해 도망가 있는 동안 미갈을 다시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녀는 다시 다윗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양상은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이 겉으로 보기에 쉽고 성공할 것 같은 쪽을 항상 추구함을 묘사해준다. 그래서 자연적인 경향성은 영적인 열매를 생산하는 애착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듯이 자연적인 경향성은 겸손에 대한 영적 가치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은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가?
- 2) 누가 그 왕을 기름 부었는가?
- 3) 그는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가?
- 4) 누가 그 왕의 친한 친구였는가?
- 5)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도록 했는가?
- 6)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가?
- 7)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는가?
- 8) 다윗은 어떤 성읍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는가?
- 9) 그는 그곳에 무엇을 모시고자 했는가?
- 10) 궤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 11) 왜 우짜에게 변이 발생했는가?
- 12) 누가 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었는가?
- 13) 그녀가 받은 벌은 무엇인가?
- 14) 다윗은 예루살렘 어느 산에 궤를 모셨는가?

- 15) 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케를 예루살렘으로 모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사무엘 3) 아니다 4) 요나단
- 5)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6) 요나단 7)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8) 예루살렘 9) 케
- 10) 키랏여아림 11) 케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 12) 미갈 13) 아이를 낳지 못했다 14) 시온산
- 15)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함
- 16)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법을 놓는 것

# 18

## 성전 건축

**머리말**

열왕기상 5장 17절(개역 5:3)에서 언급되는 성전을 짓고자하는 다윗의 바램과 주님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의 차이점도 재고해본다. 성전의 세부 사항은 제 2반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으므로 다른 반은 2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전체적인 특성과 건축 재료들 그리고 장식에 따른 각종 타입도 생각해 보자. 또한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띠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내용도 파악해 두자.

## 성서본문: 열왕기상 6장

6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시브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3.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 4.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5. 그는 또 전의 벽 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들을 꾸몄다. 6. 아래층은 나비가 다섯 척이고 가운데층은 여섯 척, 삼층은 일곱 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돌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7.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8.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9.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10.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다섯척으로서 송백나무 재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12.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13.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4.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15.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꼭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16. 또 이십 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17.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의 길이가 사십 척인데 18.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들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19. 밀실은 전의 가장 깊은 곳에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20. 그 밀실은 길이 이십 척, 나비 이십 척, 높이 이십 척인데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어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22.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23.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십 척 되는 거룩을 둘 만들어 놓았다. 24.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섯 척이고 다른 날개도 다섯 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십 척이

되었다. 25. 다른 거룩도 십척이 되었다. 두 거룩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26. 한 거룩의 높이도 십 척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룩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룩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28. 솔로몬은 거룩에 금을 입혔다. 29. 그는 전의 온 벽을 돌아가며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30.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31.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32.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룩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33.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34.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35. 그 위에다가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36.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37. 제사 년, 시브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38. 그리고 제십 일년 팔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

### 교리 요약

- \*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어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준비되는 재료들로 지어진다.
- \* 진정한 지혜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식별하여 올바른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능력이다.
- \*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은 그분을 섬기는데 고용될 수밖에 없다.

### 상응 공부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  
 솔로몬 = 사랑으로 진리에 순종함

## 해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은 거듭나는 우리 삶의 세 단계를 표현한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단계에 들어선다. 사울의 단계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의무감이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서 비롯되는 상태이다. 이후에 오는 다윗의 단계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로부터 배운 바를 이해하면서 세상의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단계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법을 공부하고 준수해 가는 상태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의 싸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님께 요구한 것은 “이해력이 있는 심정”이었다.

지식과 총명 그리고 지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아주 다르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가진 지식을 체계화하여 삶에 응용할 수 없다면, 그에게는 총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삶으로서 가진 지식을 총명으로 삶에 응용하여 살아내지 못한다면, 지혜는 그에게서 아주 먼 것이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 다윗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5장 3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주신 다윗의 임무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속의 악들과 투쟁하는 동안에도 성막으로 표현되는 우리 안의 주님에 대한 예배와 신뢰는 어린 시절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 성막이 기브온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시험을 극복해 가는 동안 영적인 인격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시험이 승리로 끝나 평화로운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서 실질적인 성전 건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훈이 본문 7절의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로 의미된다. 성전을 짓는 재료들인 돌과 나무 - 진리와 선함 - 은 거룩한 땅 밖에서 가져왔고 각 재료들은 현지에서 미리 다듬어진 후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다. 우리 속의 “성전”은 진실 된 것에 의거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듬어 이뤄지는 진리와 선함으로 지어진다. 우리속의 성전은



아주 조용히 건설되며 칠 년이 걸린다. 성전이 마무리되는 때란 우리의 성취가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측정되는 때이며, 이 성전은 우리가 영계로 건너갈 때 가지고 가게 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성전의 밀실 곧 지성소는 전체가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을 상징한다. 성전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언약궤는 이 밀실로 모셔졌다. 그런 다음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솔로몬은 엄숙한 헌당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함 곧 자신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진 계명의 준수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부와 영예를 더하여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충분히 지켜졌다. 측정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던 솔로몬의 재산은 진실로 선한 삶이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부를 내적인 측면으로 그려준다. 재산의 세부사항 역시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솔로몬의 상태에 근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솔로몬의 상태로의 미약한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안의 악을 들춰내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과 싸우고 정복하여 그 악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신뢰를 위해 쌓아진 영적인 부를 경험하게 된다. 솔로몬 왕국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있다.

## 질문 정리

- 1) 다윗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 2) 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 3)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 4) 솔로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5) 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는가?
- 6) 솔로몬은 그 재료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가?
- 7) 성전 건축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 8)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 9)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10) 성전은 예루살렘 내의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 11) 왜 성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워졌는가?
- 12) 성전 건축은 몇 년이나 걸렸는가?
- 13)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질문의 답

- 1) 적을 정복함 2)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솔로몬 4) 평화 5) 히람
- 6) 곡식, 기름, 성읍들 7) 돌, 나무, 금 8) 전체적인 윤곽측면에서
- 9) 성전은 더 견고하고 항구적이다 10) 모리아산
- 11) 원산지에서 돌을 깎고 다듬었기 때문 12) 칠 년
- 13) 사울 - 의무감에서 진리를 순종함  
다윗 - 존경심에서 진리를 순종함  
솔로몬 - 사랑함에서 진리를 순종함
- 14) 시험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인격의 형체가 이뤄진다

## 19

### 엘리아의 겂옷

#### 머리말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대신 베텔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를 대체시킨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선교활동과 분단된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서본문: 열왕기하 2장

2장: 1. 야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 가실 때가 되어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 있게.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3. 베델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5.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7. 예언자 수련생 오십 명이 뒤를 따라 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보고 있었다. 8. 엘리야가 겹옷을 벗어 맡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 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말해 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뿔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11. 그들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겹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 와 요르단강 가에 서서 14. 엘리야의 겹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아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15.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아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6.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군세고 용감한 장정이 오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아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가다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17. 그들이 계속 올라 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 하였다. 그리하여 오십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18.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 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21.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23.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하며 놀려 대었다. 24. 엘리사는 돌아 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퇘지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였다. 25.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가르멜산을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 왔다.

### 교리 요점

- \*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 발휘된다.
- \*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 \* 말씀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할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배우며 하느님의 사랑이 그 의미로 전해짐을 알게 되면, 말씀의 글자는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되며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상응 공부

예언자의 겔옷 = 말씀의 글자  
소금 = 선을 위해 진리를 바램

## 해설

엘리아와 엘리사는 주님의 예언자로서는 말씀을 상징한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듯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괴로움과 곤경을 치료해 주기 위해 우리속의 병의 근원인 악을 보여주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북쪽 지역의 지파와 요르단 건너 지역을 합한 열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기를 들고 독립된 나라를 세워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었다. 그런 다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북쪽 끝인 단과 베텔에 하나씩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예배하도록 했다. 우리가 세상적인 추론이 주님에 대한 예배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도록 허용하여 행동적인 선으로 세상의 칭송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궤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대신 금송아지들을 세워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 심정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계보에 신뢰를 두는 남쪽 유다왕국이 상징하는 것이다. 유다왕국이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계속 준수하는 모습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열왕기서 상과 하의 분단된 왕국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왕국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에 관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두 왕국을 번갈아가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선의지와 거짓추론 사이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아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셨던 바와 같이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길로 접어들도록 우리를 인도하려고 노력하신다. 본문에서 엘리아의 겔옷은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말씀을 모순 없이 이해하여 받아 들였을 때는 엘리아가 겔옷을 둘둘 말았던 때와 같은데, 엘리아의 겔옷은 과거 궤가 그러했듯이 요르단의 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하는 권능이 있었다.

스웨덴북은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공부하면서 각 구절속의 영적 의미들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되며, 배우면 배우수록 더 많은 부분들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웨덴북이 강조하는 바는 이러한 모든 내적인 의미들은 실질적으로 각 구절의 글자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시편을 포함한 말씀의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고 가능하면 암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각 구절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는 말씀의 글자를 실제로 읽거나 암송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감화를 준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보다 갑절 많이 받게 된 것은 그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리는 엘리야를 지켜보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의 하단에는 또 다른 의미들을 지닌 두 개의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머리털은 생명체 중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언자의 겹옷이나 머리털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댄다는 것은 말씀의 글자가 거룩함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엘리사를 놀려댄 어린이들을 숲에서 나온 암곰 두 마리가 찢어 죽였다. 곰이란 털이 많은 짐승이다. 털이 많다 함은 가장 바깥쪽 곧 행위로서 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에도 신성한 영감이 말씀에 들어 있음을 부정하는 이들의 경우 말씀을 공부하기는 하되 말씀을 한낱 인간의 산물로 간주하여 오히려 주님께에서 더 멀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경공부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곰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모습이 상징하는 바다.

샘터에 소금을 뿌려 샘물을 정하게(healing) 하는 사건은 소금이 진리와 선함이 하나가 되도록 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배운 후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전에 하던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배운 새로운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으로 보여주신 새 진리의 경우는 더욱 진정하며 권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새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낡고 세상적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결코 새 진리를 담은 새 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성읍인 마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유는 새 그릇에 있어야 할 소금이 빠진 까닭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실생활에 습득된 새 진리가 있는 것 곧

적극적인 응용이 빠진 까닭이다.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는가?
- 4)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진 두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엘리야의 직무가 끝나자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는가?
- 6)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 7)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8)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9)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엘리사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 11) 어린아이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놀렸는가?
- 12) 그 말이 그토록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린이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 14) 분단된 왕국의 두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예언자의 겹옷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둘로 나뉘었다 2) 이스라엘, 유다 3) 유다 4) 엘리야, 엘리사 5) 두 배의 영검 6) 만일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가능하다 7) 불말과 불수레 8) 그의 겹옷 9) 겹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보고 10) 물을 정하게 했다 11) 대머리라고 12) 불순함의 표시 13) 곰이 찢어 죽였다 14) 지성, 심정 15) 말씀의 글자

## 20

# 요 시 아 왕

### 머리말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사악한 왕들이 유다왕국에 잇달아 출현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되고 우상이 범람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꾀한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게 유다왕국까지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3장까지 읽어두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2장

22장: 1. 요시아는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시갓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여디다라 하였다. 2.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폼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3. 요시아 제십 팔 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4. “대성직자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 내어 5. 야훼의 전 공사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7.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 8. 대성직자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9.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쏟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성직자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11.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12. 그리고는 대성직자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캄, 미가야의 아들 악불, 공보대신 사반과 시중 아시아에게 명하였다. 13. “이번에 찾아 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쭙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14. 대성직자 힐키야와 아히캄, 악불, 사반, 아시아는 여예언자 홀다를 찾아 갔다. 홀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롬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십시오. 16.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17.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8.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 들었다. 19. 이곳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 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20.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정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 와

이 말을 어전에 아뢰었다.

### 교리 요점

- \*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생존해 있기 위해서는 이해성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
- \* 우리가 세상적인 사상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오도록 방지하면,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속을 서서히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 \*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 \* 우리가 우리 속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고쳐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상응 공부

아시리아(나쁜 의미에서) = 거짓 추론

### 해설

유다왕국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왕국의 몇몇 왕들의 이야기이다. 즉 아사, 여호사밧, 요시아, 아마지야, 우찌야, 요담 그리고 히즈키야 왕의 용감한 노력으로 유다왕국을 잠식하고 있었던 악의 가지들을 내려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솔로몬 왕국의 분열은 거듭나는 상태에 도달된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악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이해성에 들어오려는 거짓 사상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성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건립되었고, 금송아지들을 베넬과 단에 세운 후 더욱 나쁜 상태로 전락하여 급기야 히즈키야 왕의 시대에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 왕국으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맞서려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휩쓰는 자연주의적인 논쟁을 용납함을 표현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영토에는 외국인들이 강제 이주되어 그 자리를 메웠다.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보면, 이때 이주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이주되자마자 사자들에게 의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리아왕은 포로들 중 성직자 한 명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신을 모시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41절에는 “이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아훼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우상들도 섬겼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날까지 선조들의 풍습을 그대로 지켜 내려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끔 거론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특히 요한복음 4장 6-26절을 보면, 그들이 그때까지도 신을 예배함에 있어서 혼동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 성서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사백 여 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경멸하였다.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한쪽 귀는 자연주의만으로 추론하는 이들의 광적인 목소리에 귀를 열어두는 교인들의 혼란스런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의 선의지는 우리속의 생각보다 더 끈질긴 데가 있다. 그래서 유다왕국(심정)을 아시리아(추론, 생각)가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국으로서는 북쪽의 방어벽 역할을 해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더 이상 외세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우리의 이해성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심정이 이기심이라는 악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악을 허용하면서 회개와 재구성의 때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유다왕국의 선한 왕들도 적들로부터 보호와 스스로의 보전을 위해서 성전내의 금과 은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우리는 히즈키야 왕을 공부하면서 그가 친구인체 방문한 바빌론의 사절단을 환대하여 성전의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여 그로 인해 유다가 장차 바빌론에 끌려가게 될 것임을 왕에게 경고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지성이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적들이 우리 속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영적인 적들을 식별해 낼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명백하고 신속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므나쎄와 아몬은 히즈키야의 아들과 손자로 사악한 왕들이어서 과거 히즈키야가 부서 버린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성전 내에도 우상을 세웠다. 그 뒤 유다를 보전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요시아가 아이인데도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상기하도록 해준다. 요시아의 첫 관심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성전이 거듭나는 인격을 그린다는 상상을 생각해 보면, 악한 왕들이 성전을

황폐해지도록 방치했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 보수비용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헌납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일꾼들이 정직하게 일하여서 계산서를 검사할 필요도 없었고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자신속의 결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고치려고 정말로 신실하게 애쓴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모두 감수해 낸다는 것이다.

대성직자가 율법 책을 발견했다. 남용되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성전 안에서 율법 책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심정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기어 다니도록 허용한 후 과거 자신이 수용했던 삶의 표준이 자신 속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그 예로 한 때 높은 이상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시도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는 사회에 뛰어 들어 사업을 하면서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한 경쟁들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선의의 경쟁은 점점 멀어져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많은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흠치지 말라”는 계명의 구절이 그의 귀가에 속삭일 때 그의 마음에 여전히 신실함이 남아 있다면, 그는 본문에서 요시아가 율법책의 낭독하는 소리를 듣는 때처럼 자신이 행한 많은 사건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빼뺏어졌는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였던 악한 변명을 요시아가 옷을 찢었듯이 갈기갈기 찢게 될 것이다.

요시아가 옷을 찢은 뒤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 여쭙어보았다. 그때 예언자 홀디는 백성들의 빼뺏어진 결과는 비켜갈 수 없지만 왕인 요시야만큼은 주님 앞에 겸손하여 그의 생전에는 나라가 함락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평안히 죽도록 해주겠노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전했다. 그 후 요시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며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을 헐어 내렸으며, 점쟁이나 무당들을 쫓아내고 과거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마저 쓸어 버렸다. 그러나 악이 이미 백성들 속에 너무나 깊이 숨어들었던 차라 요시야의 혁신적인 행사들조차도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쾌락을 줄 것 같은 일이나 행위를 단 하루만 하고 금할 수 있는 척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행위는 작은 것이라도 그날 있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몸체의 일부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쌓여져 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올바르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 습관은 단번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며 이미 굳어진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 23장 29절에는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요시아는 므기또에서 파라오 느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무엘과 열왕기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집트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었다. 이집트는 지성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자연적인 평면은 우리의 나쁜 습관이 고질화되어 있는 곳이다. 요시아는 그의 나라를 이집트가 가로지르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전사했다. 므기또란 지역은 에스드랄론 평야에 있는 한 성읍인데, 이 평야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 왔다. 스웨덴본은 므기또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하르마게돈이라는 지역의 이름처럼 타인을 좌지우지하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욕망은 인격의 가장 큰 파괴자이다. 요시아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왕국은 바빌론에 정복되었다. 바빌론이란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지배욕”을 표현한다. 우리는 겸손만이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마음 바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두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따랐는가?
- 2)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한결같이 악했는가?
- 3)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 5) 그의 치적의 첫 사업은 무엇인가?
- 6) 그는 성전 수리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 7)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 8) 그 책이 요시아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께 여쭙 보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10)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11)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
- 12)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어떤 것을 요시아 왕이 철거했는가?
- 13) 나라에 질서가 잡히자 그는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가?
- 14)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는가?
- 15) 그가 죽은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6)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성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18) 유다왕국에서 가끔 선한 왕들이 즉위했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유다 2) 아니다 3) 요시아 4) 8 5) 성전수리 6) 백성의 헌금으로 7) 율법책  
 8) 옷을 찢었다 9) 여 예언자 홀다 10)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요시아 시대에는 그 벌이 없으리라 11)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했다 12)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13) 과월절  
 14)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15) 바빌론에 정복당함 16) 이스라엘 - 지성, 생각 유다 - 심정, 느낌 17) 우리의 인격 18) 심정이 재구성과 회개의 때를 가끔 가지게 됨

## 21

### 주님께 의지하는 자

#### 머리말

성경에서 시편은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놓여 있다.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늘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 성 서 본 문 : 시편 91편

1.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2. 야훼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이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3.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4.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5.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6. 밤중에 퍼지는 염병도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7. 네 왼쪽에 천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 천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8.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 값을 네가 보리라.
  9.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10.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11.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12.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13.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14.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15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 주고 높여 주리라.  
 16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신다.
- \* 시편서는 새교회의 정경에 속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 누군가의 마음이 이타적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계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

### 상응 공부

- \* 낮 = 이해하는 상태
- \* 밤 = 무지의 상태
- \* 갑옷, 방패 = 거짓에서의 보호

### 해설

우리는 열왕기하를 끝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교회를 표현했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교회를 표현했다. 그들이 오래 전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법과 규례를 잘 준수했다라면, 주님께서는 아마 그들의 예식 속에 담겨있던 상응을 통해서 천국과 인간과의 연결을 유지시켜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주님의 법을 준수하기를 중단했고,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 대부분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때까지 그들의 역사는 말씀에 수록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2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바는 주님 앞에 겸손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땅에 남겨졌다는 것이며 그들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예식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시편은 다른 성경책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 책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언급하셨듯이 말씀의 한 부분이다. 스웨덴본은 「예언서와 시편」이란 그의 저서에서 그 책들의 내적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서는 제 5권에 첨가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웨덴본은 그의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편의 많은 구절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본문의 구절들의 경우는 그의 저서들에서 22번이나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인용된 구절들의 영적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다. 시편서는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유대인의 역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노래 책이며, 노래란 감정의 표현이다. 이것은 시편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이며, 우리 기억에 쉽게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느낌을 말해주는 것들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시편을 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거쳐가신 여러 상태들의 표현이다.

우선 시편 91편은 꼭 배워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바깥쪽 삶에서 실망, 질병에 의한 고통 혹은 사별과 같은 수많은 곤란을 겪는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홀로 대면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은데, 바로 이럴 때 시편을 읽고 시편의 진정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자 언제나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는 우리가 겪게 되는 바깥쪽 삶의 위험이나 곤경으로부터 언제나 우리를 구해주시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보고 인식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는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하여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 91편에 언급된 위험들이란 영적인 위험들 곧 지옥에서 오는 악과 거짓에 의한 위험들이다. 우리는 그 위험들 중 어떤 것은 미처 눈치 채지도 못하고 당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그 위험들이 바로 우리를 밤중에 덮치는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의 위험들은 우리가 명백히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 안의 달콤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당하게 되는 위험들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러한 위험들은 낮에 닥쳐오는 것들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있다면, 즉 우리의 아주 깊은 심정이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그분의 안내를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낮의 위험이든 밤의 위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으시다.

본문의 시편은 주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이상의 것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 정신적인 노력에 관한 일이다. 즉,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말씀 속에서 날개란 영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진리와 깊은 진리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공부에 참석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리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얻어야 할 진리의 양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며, 주님의 재림에서 밝혀 주신 영적 의미가 담긴 스웨덴북의 저서들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4096항에서는 “말씀 속에 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억 속에 담아 지고, 그 담아진 기억 속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 기쁨을 지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 뿐이다”라고 설명된다. 이와 더불어 “사랑과 선행 속에 있는 선은 주님께에서 흘러들어 오는데, 그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가 담아놓은 지식들 외의 다른 것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설명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오늘날의 우리는 아득한 옛날 태고 교회인들이 가졌었던 방법인 지각을 통해서 진리를 습득하지 못하고, 마치 짙은 구름 속의 물방울을 통과하여 나오는 햇빛이 무지개를 형성시키듯이 외부 경로를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온 지식들을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스웨덴북이 거듭 강조하는 “선은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지 간에 “나는 배울 것을 다 배웠어” 혹은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이면 남들에게 뒤떨어지지는 않을걸.”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스스로가 완성의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말씀 속의 의미를 날마다 더 새겨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그 이유는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시편은 무엇인가?
- 3) 우리는 시편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 4) 왜 모든 이는 시편을 사랑하는가?
- 5) 주님께서는 시편 91편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 6) 본 시편은 위험을 어떻게 둘로 분류했는가?
- 7)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위험을 말씀하고 계신가?
- 8) 주님께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9)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 10)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11) 낮에 있는 위험과 밤에 있는 위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시편 2) 노래 3) 누가복음 24:44 4) 심정에 호소하므로
- 5) 보호 6) 밤과 낮 7) 아니다 8)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 9) 우리를 돌볼 것이다 10) 나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사용
- 11) 낮 - 결과를 예상하면서 있어진 악  
밤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진 잘못

## 22

### 성전에서 솟는 샘

#### 머리말

에제키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대 예언서의 일반적 요점을 소개한다.

### 성 서 본 문 : 에제키엘 47장 1-12절

47장: 1.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뺨은 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2.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 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3.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4.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5.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6.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7. 되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8.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9.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10.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11. 그러나 수령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12.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 교리 요점

\* 모든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 \* 말씀은 깊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되 말씀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 \* 선한 일 안에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상응 공부

측량줄 = 교회의 상태를 재보는 능력

남쪽 = 영적 총명

북쪽 = 영적 회미함

### 해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을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책들의 분량이 다른 열 두 권의 소 예언서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유다에서 히즈키야왕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 왕들의 시대에서도 예언했다. 예레미야는 유다백성들이 포로로 됨을 목격했으나,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사이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의 예언들은 그에 따르면 포로가 된지 5년 후부터 20년간 주어졌다고 한다. 그가 본 환상들 중 마지막 부분이 에제키엘서 40-48장인데, 여기에 본문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영은 환상 속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겨졌고, 끈과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고 있는 천사에 의해 인도되었다. 이러한 천사의 측량은 열왕기하서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제 46장을 통해서 에제키엘이 그에게 익숙한 것들에 관한 꿈을 가진 까닭이 그가 성직자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제 47장에서는 그가 포로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그는 성전 동쪽 문턱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그 물이 제단 남쪽에서 근원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진리를 묘사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님의 진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제키엘의 환상 속의 강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진리를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었음을 인정한 후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준비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한 후 삶에 응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두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생명의 강조차도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수령이나 웅덩이와 같은 곳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곳에는 잔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소금은 좋은 의미로는 진리가 선에 하나 되는 요소 또는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바람을 표현하지만, 본문의 경우와 같이 나쁜 의미로는 진리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가 사악한 성 소돔을 뒤돌아보았을 때 초래된 소금기둥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스스로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 곧 우리 속에 이기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이 언제나 들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남아 있는 잔물 웅덩이로 상징된다. 이 웅덩이는 생명의 강물이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진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진리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강은 우리의 영혼이 거둬나면서 더욱 깊어져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강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결코 시드는 일이 없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때도 없다. 이러한 나무들은 우리 속의 영적인 총명이 더 진전될 때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원리들에서 자라난 생각들을 상징하며, 이는 강가 양쪽에 자라나는 나무들의 잎이 무성한 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약이 된다. 약은 병을 치료할 때 쓰인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잎 곧 생각들을 수단으로 영혼의 질병인 자신 속의 결점과 약함을 보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강은 치료와 더불어 우리 속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이 살아 있도록 해주며 유용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진리의 강가에 서서 우리 속의 자연적인 지식을 끌어올리게 된다.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근원됨을 명확히 보는 사람과 주님께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해 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잘못 흘러가지 않으며 실망이나 자포자기로 인해 좌절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을 강타하는 많은 외부 환경 조건에서도 행복하고 유용한 삶 곧 충만한 삶을 일구어 나간다.

## 질문 정리

- 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 3) 천사는 무엇을 맨 먼저 측량했는가?
- 4) 에제키엘이 알고 있는 성전 내용 중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5) 천사가 강을 측량할 때 얼마큼씩 멀리 측량했는가?
- 6) 에제키엘로 하여금 건너가보도록 허용된 세 가지 깊이는 무엇인가?
- 7) 마지막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가?
- 8)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9) 강가에 누가 서 있었는가?
- 10) 강물이 닿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 11) 살아있게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 12) 이런 장소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 13) 나뭇잎은 무엇에 쓰였인가?
- 14) 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잎과 열매는 무엇을 그리는가?
- 16) 우리가 항상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예루살렘 3) 성전 4) 물 5) 천 큐빗 6) 발목, 무릎, 허리 7) 머리
- 너머까지 8) 나무 9) 어부 10) 건강하게 된다 11) 잔물로 13) 치료 14) 말씀 15)
- 잎 - 좋은 생각, 열매 - 선한 행위 16) 말씀에는 끝없이 많은 지혜가 있다

## 23

### 느부갓네살의 꿈

## 머리말

다니엘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서 안에 알맞은 장소를 정해 주셨다. 유다왕국의 함락과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다.

### 성서 본문: 다니엘 제 2장

2장: 1. 느부갓네살왕 제 1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려고 미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3.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4.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더미로 만들리라. 6.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 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8.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9. 너희가 내 꿈을 알아 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렵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10. 점성가들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미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묻은 적이 있습니까? 11. 임금님께서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12.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재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13. 재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14.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륙이 바빌론 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15.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륙이 그 사정을 알려 주자 16.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17.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 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18.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재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19. 그 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21.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재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어라.

21.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어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23.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륙을 찾아 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륙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 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 온 유대인입니다.” 아륙의 말을 듣고 26.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나?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나?”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재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라도 밝혀 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28.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31.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2.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33.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 같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36.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임님께서 왕이실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38. 하느님께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40. 네 번째로 철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습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마는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웅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42.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웅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43.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웅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웅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4.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놋쇠와 웅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46.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47.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48.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재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 교리 요점

\* 하느님의 섭리는 역사를 조절한다.

- \* 계시는 예언자들에게 종종 꿈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 \* 겸손함은 선행의 필수 요건이다.

### 상응 공부

철 = 자연적 진리

진흙 = 선함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악으로 전환된 자연적 선

밭 = 우리의 일상 지침

### 해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두 왕국 중 이스라엘은 이해성을 그리고 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서 아시리아는 거짓된 추론을 상징한다. 그리고 유다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는데, 바빌론은 “자아사랑에서 나온 지배욕”을 상징한다.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지배욕은 스스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비평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남들처럼 결점을 지녔다고 긍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결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소지를 많이 두고 남들에게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심한 경우 자신의 의견에 대립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깎아 내리거나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오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이 상징하는 것이다. 금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은은 영적인 진리 또는 믿음을, 놋쇠는 자연적인 선함을 그리고 쇠는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진흙은 자연적인 선함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스스로가 똑똑해서 선함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악으로 변해진 상태를 상징한다. 또한 머리는 지혜를, 발은 직접적인 행동을 상징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꿈속의 형상은 인격의 변화를 묘사한다. 즉,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 자기 속의 선함이나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속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들 역시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인격자라고 생각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선행이 결핍되어 진리보다 거짓 추론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표현한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가 신성한 진리 곧 자신의 행동지침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어야만 된다는 진리에 갑자기 맞부딪치면 여태껏 그가 닦아놓은 인생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성서의 이야기로 볼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인 응용을 더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입으로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그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영을 담은 자였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 그의 나라는 얼마까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 흡수되고 말았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창조자이시며, 창조물을 관리해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조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에 따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면 자이를 높이려 하느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행동이나 방향을 논할 때 또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때 유념해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이사야 60장 12절의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리라.”라는 말씀도 기억해야할 것이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왕국은 곧 하느님께서 세우실 왕국인 것이다.

스웨덴붉은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형상을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남을 지배하라고 부추기는 자신속의 이기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허용하여 결국에 주님의 권능을 횡령함으로써 주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지경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교회 역사의 측면에서 금으로 된 머리란 태고 교회를,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 교회를,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열조 시대를 지나는 히브리 교회를, 쇠로 된 정강이는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교회를 그리고 쇠와 흙으로 된 발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있게 되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상징한다.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석이란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해야 할 사항은 많은 신화와 설화들 역시 금, 은, 동 그리고 철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위와 같은 경이로운 예언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과 재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대 예언서의 네 번째 예언자인 다니엘은 부유하며 권력까지 지닌 유일한 예언자였다. 그는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고레스 시대까지도 그의 번영과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제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성공은 주님에 대한 그의 겸손과 순종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의 일생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의 삶은 시편 91편에 대한 좋은 표본이기도 하다. 어느 것도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또 하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다니엘은 출발 당시부터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강조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요셉이 파라오에게 했던 것과 같다.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명예와 권력을 보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말을 인정하여 그의 하나님이 가장 큰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되 자신의 선함이나 지혜를 상대방에게 강하게 인상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서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차 있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의 약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약함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왜 주님은 언제나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계발해 주실 수 있으셨는가?
- 3) 다니엘 당시 누가 통치했는가?
- 4) 이 왕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무엇을 대답하라고 요구했는가?
- 5) 다니엘은 그 대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 6)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
- 7) 이 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
- 9) 그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 10) 어떻게 형상이 파괴되었는가?
- 11) 형상을 부순 돌은 무엇이 되었는가?
- 1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3) 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는가?
- 14) 상을 만든 네 금속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5) 그 상의 발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그의 믿음 3) 느부갓네살 4) 왕의 꿈을 재생하고 해석함
- 5) 기도를 통해 6) 큰 상(형상) 7) 금 8) 은, 동, 철 9) 철과 진흙
- 10) 돌 11) 산같이 큰 바위 12) “하느님들의 하느님” 13) 온 지방의 통치자
- 14) 금 - 주님을 사랑, 은 - 믿음, 동 - 자연적인 선함, 철 - 자연적인 진리
- 15) 바깥쪽 삶

# 24

##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 머리말

우선 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한 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성서 본문 : 아모스서 제 8장

8장: 1.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 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제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3. 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 데마다 버려진 시체 투성이가 되리라.”

4.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5. 겨우 한디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빛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켈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7.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8.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오랐다가 잦아들리라.
9.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10. 순례절에도 통곡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면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굽은 배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잃은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11. 나 야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 말리라.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12. 끝내 앙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데만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3.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14. 라바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회리바람과 함께 살라 버리고,
15.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 아훤의 말씀이시다.

### 교리 요점

- \*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벌은 우리가 행하는 악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말씀의 목적중의 하나는 우리속의 악들의 해로움을 경고하는 것이다.
- \*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 \* 굶주림이란 선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 상응 공부

바구니 =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의 의지부분  
여름 = 선행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목마름 = 진리를 갈망함

### 해설

소 예언서가 우리의 삶에 즉시 인용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서 아모스서를 채택했다. 열 두 권의 소 예언서들은 각기 매우 짧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 중 요나서는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소 예언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는 사항은 그것들이 예언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하고자 소 예언서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 책들의 역사적 측면만이 부각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한 국가나 개인 또는 한 장소나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의 의도가 자연적인 사건보다 영적인 측면에 초점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는 아모스서 1장 1절에 아모스가 우찌야 왕 시대 때에 예언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 예언 했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정확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예언이 우찌야 통치 때의 사건이나 조건들이 표현하는 교회 또는 개인의 하향길 속에 있는 특별한 단계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아모스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었으며 예언자 수련생도 아니었다. 아모스서 7장 14절의 그가 목부 또는 돌무화과를 가꾸는 농부였다는 기록은 퇴보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 열려 있는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퇴보되는 상태로 만연해 있었던 시대의 예언자나 예언자 수련생들은 모두 거꾸로 된 교회를 대변했다. 즉, 이사야서 30장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솔직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교회의 대변인들이 많았다. 반면에 아모스의 직업과 같이 목부나 돌무화과 농부는 그가 가진 선함을 보존하려 애쓰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표현한다.

본문에서 주님께서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 한 바구니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핵하고 그들의 파멸을 예언하는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아모스가 본 지극히 단순하며 사랑스러운 환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뜻 본문을 읽고 아모스에게 그 환상이 주어진 까닭을 글자적인 의미를 통해 추측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시편과 예언서」에서 아모스서 제 1절에 대해서 “교회의 새로운 것이 존재 안으로 오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 절을 보다 광범위한 주제인 “이런 교회 대신 새로운 교회”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 2과 3절에 관하여 “옛 교회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전적으로 황폐되고 파멸됨”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처음 보여 지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배경을 지나 그를 받쳐주기 위해 주시는 빛나는 약속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떠받쳐 주기 위해서 영계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여름과일 한 바구니란 선한 일로 이끄는 선행으로 가득 찬 마음을 그린다. 또한 이것은 한 개인 속에 있는 진정한 교회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아모스서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실태는 여름과일이 담긴 바구니의 환상과는 직접적으로 대비된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사업에서도 부정직했다. 또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만을 지키며 그 형식 속의 주님은 고려하지 않았고, 내심으로 악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은 결국 영적 파멸과 죽음을 초래한다. 이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사피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을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고 책망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다(마태복음 23:23 참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파인과 율법학자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 놓고는 사람들을 가로 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 이는 본문 11절에서 미리 언급된 것이다. 선한 자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말씀을 읽고 소유하면서 가르쳐질 것으로 기대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지상에서 존재했던 교회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때마다 주님께서는 옛 교회에 속하기는 했지만 소수의 선한 사람들로부터 새교회를 일으키셨던 것이다. 예언서들은 고대 유대교회의 황폐해짐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태고교회나 고대교회의 경우보다 더욱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유대 교회는 주님의 강림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첫 기독교회의 쇠퇴와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공부를 신실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들은 아모스와 같이 여름과일 한 바구니에 대한 환상을 보도록 허락된다. 우리가 보게 되는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의 응용은 이기적이며 모독만을 일삼는 세상 삶의 홍수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주며,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도록 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2) 왜 우리는 그 책들에 “소”라는 말을 붙이는가?
- 3) 이 책이 쓰여 진 가장 이른 연대는 언제인가?
- 4) 이 책 중 마지막 세 권의 연대는 언제인가?
- 5) 이 책들 중 아모스서는 몇 번째에 들어있는가?
- 6) 그는 언제 살았는가?
- 7)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8)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9) 그는 누구를 향해 예언했는가?
- 10) 본문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 11)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12)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제 11절은 어떤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가?
- 14) 복음서의 팔복 중 몇 번째가 위의 11절과 같은가?
- 15)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질문의 답

- 1) 12권 2) 짧아서 3) B.C. 800년 4) B.C. 400년 5) 3번째
- 6) 우찌야 시대 (약 B.C. 800년) 7) 드고아 8) 목부
- 9) 이스라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족들 10) 여름과일 한 바구니
- 11) 속이고 흠치고 12) 국가가 망한다 13) 말씀을 듣지 못함 14) 4번째
- 15) 심정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듣기 위해 지성을 열면 된다.

## 25

### 강림에 대한 예언

#### 머리말

성경의 두 부분과 단어 「Testament, 성약」의 의미를 설명한다.

#### 성 서 본 문: 말라기서 3장 (개역 3,4장)

3장: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터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뿔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기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6. 나는 야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7.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까?”하고 묻는다. 8.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9.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공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1.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2.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못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3.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14.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배웃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15.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은가!’

16.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잊지 않으리라. 17.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 주리라. 18.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19.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볼처럼 타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 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21.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채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2.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23.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24.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의 오심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져 있다.
- \*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만을 말했다.
- \* 자신의 지혜를 신뢰함은 신앙과는 정반대이다.
- \* 선한 자는 언제나 구원될 것이다.

### 상응 공부

태양 = 주님, 신성한 사랑, 주님을 사랑함  
 날개 = 영적 진리  
 송아지 = 외면의 선(실생활에서의 선)

### 해설

말라기란 히브리어로 “나의 특사(전달자)”란 뜻이다. 어떤 이들은 말라기란 단어가 예언서의 책이름이기 때문에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이 아닐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말씀속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와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고, 이렇게 담겨진 내적 의미말로 주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진정한 목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며, 각각의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말라기의 말씀은 소 예언서의 마지막으로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에 해당된다. 말라기가 전하는 말씀은 첫째로 주님의 생애와 관련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영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세상에서의 주님의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 공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의미들 중에서 주로 개인적인 측면을 공부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로 개인적인 측면보다 글자적인 의미나 역사성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왕이 등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줄거리는 에즈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책들로부터 포로로 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귀환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과 귀환한 백성들이 그들의 귀환이 허용된 이유인 성전의 완성과 예배의 회복에 대한 것보다 그들의 집의 재건이나 땅을 차지하고 복구하는 것에 더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세상적인 목적물만을 추구했던 구습에 다시 쉽게 젖어 들었고,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귀환의 초기에는 예언자 하깨가 보내져 성전을 완성시키도록 촉구되었다. 그 뒤 즈가리아가 보내졌고, 말라기가 마지막 경고를 하도록 보내졌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 세례자 요한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예언자도 이 백성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이러한 400여년의 시대에 대해서 “경외서, Apocrypha”라는 책들이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들은 기독교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동안 이 백성들은 타국가의 지배하에 있었다. 우리는 복음서의 시대 때에도 로마제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그들을 통치하는 유대인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로마제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들의 외적 역사에 해당된다.

우리는 본문에서 당대 사람들의 내적 상태와 그 국가 역사의 나머지 시대 동안의 상태를 볼 수 있다. 3장 5-15절에서는 이 나라가 빠져버린 악들을 함께 묶어서 묘사되고 있고, 그 외의 악들이 1장과 2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특별히 14-15절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귀환한 백성들 대부분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누렸던 부와 번영을 회망하여 귀환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때 그들의 예배 동기는 이기적이기만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때에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16-18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여태껏 살펴본 바대로, 어떤 교회가 기울어져가고 있을 때일지라도 그곳에 언제나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즉, 이들이 더 이상 진리를 알 수 없었다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남아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들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는 진리에 무지하더라도 심정이 선에 기울어져 있는 이들을 “그루터기 또는 남겨두신 것”이라고 부른다. 이는 농부가 겨울이 와서 마치 죽은 듯 지내지만 봄을 기다리며 종자 씨를 겨울 내내 잘 보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언제 예언되었는가?
- 3) 세 권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은 누가 예언했는가?
- 4) 말라기란 무슨 뜻인가?
- 5)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6) 말라기는 어떤 큰 예언을 하고 있는가?
- 7) 그는 그분의 오심이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 8) 그분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9) 그분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10)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진다고 했는가?
- 11) 주님의 오심은 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했는가?
- 12)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 때까지 왜 예언자가 보내지지 않았는가?
- 13) 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했는가?

### 질문의 답

- 1) 12    2)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3) 말라기    4) 나의 특사
- 5) 십일조 법에 불순중함    6) 주님의 오심    7) 정의의 태양



- 8) 그들을 짓밟으리라 9) 그들을 치료해 주리라 10) 엘리야
- 11)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기 때문 12)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
- 13) 주님의 진리가 갑자기 들이닥친 결과로 자아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

## 26

### 세레자 요한의 출생

#### 머리말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배경의 설명을 추가해 왔으나 신약 성서의 공부에서는 하나의 지리적인 배경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였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바다, 가파르나움, 요르단강 건너지역 그리고 예리고의 지도상 위치를 기억해둔다. 본문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나 주님의 탄생을 성탄절 공부에서 다루지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와의 연결점을 강조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장

1장: 1.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3.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게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아 조에 속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야였고 그의 아내는 성직자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8. 어느 날 즈가리야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성직자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9. 성직자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야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10. 안에서 즈가리야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12. 이것을 본 즈가리야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16.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 올 것이다. 17.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18.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야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말하자 19.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일러 주었는데 20.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22.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야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병어리가 된 즈가리야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시늉만 할 뿐이었다. 23. 즈가리야는 성직자 당번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 왔다.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 앉아 있으면서 25.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 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 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29.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31.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33.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34.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자 35.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 39.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 가서 40. 즈가리야의 집에 들어 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42.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4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44.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46.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8.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50.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  
 다. 51.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3.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4.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였다. 61.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며 62.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64.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아기 아버지 즈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68.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찾아 와 해방시키셨으며,  
 69.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시어 75.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76.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77.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79.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80.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 교리 요약

-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다.
- \* 신약성서 안에 구약 성서가 꾸준히 인용되어 신약과 구약이 함께 묶어져 있으므로, 그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에 관한 조그만 지식까지도 흠모한다.
- \* 우리속의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만든다.

### 상용 공부

병어리 = 드러내 놓고 주님을 믿지 못함  
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삶을 정화 함

### 해설

말라기서를 포함한 구약성서의 많은 책들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경이로운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다. 말라기서 이후 주님의 강림 때까지 있었던 사 백 여년의 공백 기간 동안 강림에 관한 예언들은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일례를 헤로데가 구주가 탄생하실 곳을 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묻고 그들이 그 답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엿볼 수 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거나 일반 백성들에게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낳기도 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처럼 두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의로운 시대가 오기를 갈망하는 이들과 현재의 삶을 그대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이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누가복음 제 1장에는 주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나 요한복음보다 더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구약 성서로 알 수 있는 사항은 때가 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언자가 보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말라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라고 했다. 마태복음 11장 10-14절로부터 사람들이 장차 보내질 사자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고, 요한의 부정부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구주로 믿고자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스웨덴북은 천사 가브리엘이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사회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은 요한의 출생과 주님의 탄생을 알렸다. 우리는 그가 요한의 선교에 관해서 즈가리아에게 한 말과 주님에 관하여 마리아에게 전한 말의 내용을 세심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한의 직무는 주님을 맞이할 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주님에 관한 예언은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선한 이들도 깊은 악과 캄캄함 속에 놓여 있어서 위와 같은 예언이 있어진 것이다. 율법과 예언들의 가르침은 윗자리에 놓리았은 원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인해 희석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기심과 세상욕에 의해서 매장되어 버렸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적합한 준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던 상태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이 악과 거짓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진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의 파괴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겸손과 회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반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즈가리아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요한 또한 자신이 주님에 앞서 보내진 자임을 선포했다(누가복음 3:4). 그리고 주님께서도 변모의 사건 뒤에 세 제자들에게 위의 진리를 밝혀 주셨다(마태복음 17:10-13).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다. 엘리야의 메시지 역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야란 우리의 삶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생명이 없는 불모와 같이 되어 버림을 상징한다. 거친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란 우리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게하는 삶의 거친 부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가 먹은 메뚜기와 들꿀이란 삶의 거친 것들로 인해 비롯된 회개에서 갖는 만족이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에 관하여 “이 부부는 다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즈가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그가 들은 예언의 성취가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변치 않은 믿음으로 그는 병어리가 되어야만 했다. 스웨덴볼은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병어리란 무지해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뜻한다고 말한다. 요한의 출생은 즈가리아의 혀를 풀리도록 해주었는데, 즈가리아의 첫마디는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다. 요한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볼 때 주님보다 먼저 출생했고, 그분의 출생 전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그의 친척인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때는 요한의 일이 우리 속에서 먼저 있게 될 때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속의 악을 보고 싸워 나가 마음의 길을 터놓을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이다. 간혹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주님의 특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속의 악을 보지 않고 그것과 싸우지도 않은 채 종교적 열정만으로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속의 악을 질책하기보다 먼저 자신속의 악을 보고 심판해야 한다. **신앙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중의 하나는 “나는 꽤 선한 인격의 소유자야”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러한 속성이야말로 우리를 악에 기울도록 하고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혀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거듭남이나 구원이 어떤 수준에서 있어든지 회개는 그에 앞선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자신속의 드러나는 악함이나 부족함을 대범하고도 솔직하게 직시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만심에 취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곧 이타적인 영이 자만과 거만함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
- 2) 말라기는 어떤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가?
- 3) 말라기는 어떤 두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가?
- 4) 주님이 오실 당시 그 땅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
- 5) 주님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6) 주님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7) 첫 특사는 누구라고 했는가?
- 8)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 9) 그 천사는 누구에게 먼저 왔는가?
- 10)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즈가리아에게 주었는가?
- 11)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12) 천사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13)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4) 우리는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15)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6) 왜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 17) 병어리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는가?

#### 질문의 답

- 1) 말라기 2) 주님의 오심 3)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사와 언약의 특사
- 4)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과 선해지기를 원한 이들 5) 풀무불에 타듯이 된다
- 6) 고침을 받는다 7) 엘리야(요한) 8) 가브리엘 9) 즈가리아 10) 아들을 갖는다
- 11)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12) 마리아 13) 아들을 가진다
- 14)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 15) 회개하라! 16) 세례를 주었기 때문
- 17) 영적인 무지 18) 겸손과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

## 27

### 주님의 탄생



## 머리말

본장은 교회의 절기중 하나에 속하나 성서를 차례대로 배열하고자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성탄절에 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성탄절에 대한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장 1-20절

2장: 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7.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13.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 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하면서 16. 곧 달려 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 교리 요약

- \*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이다.
- \*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도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 \* 주님께서서는 우리속의 유대 땅 곧 마음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속의 갈릴래아 지역 곧 일상생활에서 성장하시며 우리속의 사마리아 지역 곧 생각을 자주 거치셔야 한다.

## 상응 공부

마구간 = 말씀에서 온 진리의 교리

목자 = 순진을 흠모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 삶을 목적으로 진리를 흠모하는 이들

## 해설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미한 사건처럼 여겨진 주님의 강림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단지 인간이었다고 우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친숙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한 쪽에 소속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진리를 흠모하다 사랑해 버리는 동방박사와 순진과 신뢰를 흠모한 목자라는 두 부류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꺼이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할 것이며 설사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탄생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자 보내졌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예비로서 있게 된 진지한 자아 탐구와 회개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 곧 마리아와 요셉, 즈카리아와 엘리사벳,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공부하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복음(새 소식)에 열려 있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밝힐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새 진리를 영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도록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를 받는 길을 뒤엎어 버리는 어떤 것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력은 헛될 뿐이다.

스웨덴북은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특전이 간섭될까봐 천사들이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한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허용하셨기에 선포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천국에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표현인 것이다. 이에 관련되어 주기도문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진실로 영화로우시면, 그곳에는 순진이 존재할 것이고 선한 의지가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될 것이다. 평화란 순진 - 해를 주지 않음 - 으로부터 있게 되는 상태이다. 주님께서서는 어린 양이라고 불리며, 평강의 왕이라고도 불린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마음 안에 받아 들였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인도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분리된 외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는 성탄과 관련하여 그분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릴래아의 나자렛에서 성장 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과 자라신 곳의 의미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은 의지 측면을 그리고 갈릴래아 지역은 외적인 삶의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놓여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의 이해성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지상에서 주님의 공생애 대부분은 갈릴래아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주기적으로 오르내리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기억한다. 이는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 할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 보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바람은 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섬김으로 수행될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행동적인 삶에서 섬기는 것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바른 수단을 알고자 연구하고 생각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짐하는 재생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깊은 묵상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의지를 간직하려 애쓰는 이들 조차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만 악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그분 자신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인간들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때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 애쓰며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속의 악들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만이 가능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인간에게 합리성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게 되면 인간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합리성과 선택의 자유를 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2) 주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전에 지상에 태어나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4)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5)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 6) 그분의 탄생이 알려진 이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누구인가?
- 7)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 8)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졌는가?
- 9) 그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가?
- 10)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11)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다는가?
- 12)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 14) 목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 15) 누가 목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했는가?
- 16) 예수란 누구인가?
- 17)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가?
- 18)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 2000년 전 3) 베들레헴 4) 마리아
- 5) 요셉 6) 동방박사 7) 별을 보고... 8) 목자 9)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 10) 천사 11)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 12)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3) 마구간 14) 그들이 만난 사람 15) 마리아 1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 17)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심 18) 속량, 모든 이로 구원 가능하게 만드심

## 28

### 나인성의 과부

#### 머리말

제 1권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다루어 같은 사건의 중복을 피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님 생애의 초기나 세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관된 사항들은 각 권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7장 1-30절

7장: 1.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2. 마침 그 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4.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6.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사람이 못 되며 7. 감히 주님을 나가 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8.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19.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20. 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고 말하였다. 21. 바로 그 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22.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4.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 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6.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27.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28.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30.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 \* 모든 예언자들은 말씀을 표현한다.
- \*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 \* 진정한 선행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 상응 공부

과부 = 소유하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잃은 선한 바램  
갈대 = 말씀의 가장 외적인 뜻

왕궁 = 천국

## 해설

새교회는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새교회인들은 말씀중의 기적들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이라서 구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거나 기적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억측에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유지 하며 보전시켜 주신다. 또한 그분의 권능이 영계와 자연계의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것에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는다면 기적들에 대한 어떤 혼란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수행하시지 않으셨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의심이 많은 자들처럼 그 당시에 주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기적을 모두 믿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거나 듣고서 그 권능이 필시 악마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신 까닭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어떤 확증을 주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심으로서 오로지 세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나라나 시대에 휘말려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필요로 하고 찾으면서 그분을 인정하고자 한 이들과 말씀의 가르침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적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훗날 상응으로 가르쳐 지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 그분의 영이 세상에 역사하심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영적인 시야에 관한 능력이 배가되도록 해 주셨고, 다시 재림을 통해 이러한 능력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셨다. 이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29).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높은 믿음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당시 베푸신 기적들은 분명히 그분께서 행하신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들이 갖는 상응적인 의미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백인대장처럼 우리의 생명이



자신과 세상의 영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쓰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까지도 주님의 권능이 미쳐서 생명을 주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한 백인대장이란 스스로를 고치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며 영적인 상태가 자신의 일상생활까지 모두 지휘하고 있는 올바르게 잡혀 있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생활에서 있어지는 마지막 시험에 해당된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희미한 길마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즉 의심과 실망의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권능이 재활시켜 주심에 대한 묘사이다. 나인성의 과부란 선한 바램이 그에 따라 있어야 할 적절한 진리를 빼앗긴 상태에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 안의 선의지를 표현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한쪽에 밀쳐두고 당면 문제들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의 빛으로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흔하다. 또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는 위로와 충고를 가지고 돕고 싶었던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이웃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접근하고 도와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 스스로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알지 못해 번민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속에 든 약함이 우리를 어떻게 엉뚱한 데로 끌고 가서 내동댕이치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막상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도 허다하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선해지고 싶다는 것 혹은 선행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는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여기며 폭 주저앉고 만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어떠한 것도 자신이 가진 능력이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상징된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은 곧 “마치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과부나 그의 친지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성문”가에 서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상여에 손을 대실 때 장례행렬이 멈췄듯이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 대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나라!”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하려다 실패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아뢰의 궤 앞에 엎드렸던” 여호수이를 기억한다. 그 때에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숨겼다”라고 타이르셨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여 바로잡게 되었고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감옥에 있는 세레자 요한으로부터 제자가 주님께 보내지는 모습 역시 위와 같은 실망과 의심의 모습과 같다. 주님께서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여 대답을 주셨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거나 주위를 둘러볼 때 인간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에 있는 고난은 원칙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본문의 뒷부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주님의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흔들거리고 비비꼬아지는 것이 아니며 천국의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쉽게 보이고 유쾌하게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세레자 요한은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2) 세레자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통고했는가?
- 4)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5) 같은 천사가 어떤 다른 통보를 했는가?
- 6) 누구에게 위의 통보는 있어졌는가?
- 7)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두 개의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가?
- 8) 세레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9)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10) 왜 주님은 세레를 받으셨는가?
- 11)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 13)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 14) 요한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15)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6)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17) 주님께서는 누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
- 2) 즈가리아와 엘리사벳
- 3) 천사 가브리엘
- 4) 요한의 출생까지 병어리가 됨
- 5)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
- 6) 마리아
- 7) 축가와 찬미가
- 8) 회개하라
- 9) 그들에게 세례를 줌
- 10)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 11)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심
- 12)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심
- 13) 그분은 생명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
- 14)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 15)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 16) 예언자
- 17)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 29

### 열 두 사도의 파견

#### 머리말

본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장에서는 열 두 사도의 파견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 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9장 1-36절

9장: 1.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보내시면서 3.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5.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6. 열 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 7. 한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 왔기 때문이다. 9.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뒤쫓아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13.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14.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15.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었더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19.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미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2.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35.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화하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은 주님께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 \* 믿음은 남을 도울 능력을 준다.
- \* 우리가 남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상응 공부

열 둘 =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베드로 = 믿음  
 야고보 = 선행  
 요한 = 선행으로부터 이루어진 일

### 해설

사도란 단어는 “파견됨”을 의미한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천국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 두 사도를 파견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 주님의 사도들에 있었던 바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추종자들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계셨듯이, 그분은 지금의 우리 안의 것들도 모두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영적인 품성에 관한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분에 관해 가져야 할 확신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경지를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속의 악해지려는 경향성을 정복하고 우리의 결점과 약함을 고치도록 하는 능력을 그분께서 주심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증진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분의 일을 하는 동안 자신들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준비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스스로의 공적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지는 경향성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이 타인에게 해준 일이나 말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 한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와 타인을 도와주려는 우리의 선한 능력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영을 위한 어떤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잊는 것 곧 망아(忘我)적인 마음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요건일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대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혹은 그 선행을 기꺼이 수락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 자신의 하고 있는 선의 행함이 종료될 때까지 그 행함에 머물러야 함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필요로 하고 작은 보탬이라도 환영하는 이에게 그런 것을 해주면서도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의 관심이 어떤 다른 흥미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또는 상대방과의 견해차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5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충고나 도움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라”라고 경고되고 있다. 이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 싶지 않는 이들을 우리 마음에 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면 또 다른 할 일이나 노력에서 우리를 구름같이 덮어 씌워버리거나 실망만을 주어 우리의 의지를 아예 주저앉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선의지를 거절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발에 묻은 먼지”로 의미되고 있다.

사도들이 그들의 실습 여행을 마치고 주님께 되돌아 온 후,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익힌 교훈을 남독하도록 할 또 다른 경험을 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심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우리의 미약한 지식이나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가 익혀야 할 기본이 되는 가르침에 접하도록 해준다. 본문의 의미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선택된 성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자. 즉,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이사야 9:6).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복음 1:21-23).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말이를 받아 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말이를 말아서 시중들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4:17-21).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4:25-26).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요한복음 14:8-9). 위의 몇몇 구절들만 살펴보더라도,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글자적인 의미에서조차 하느님의 아들이란 인성을 입으신 하느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하는 임마누엘을 의미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으로부터 성경적이지 않는 삼위일체론의 결말을 끌어내어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의 예언 안에서 그 명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장하신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이란 고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장차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32-33절을 읽어 보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대개 그들이 원하는 하느님이 예수와 같은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자신과 비슷한 인간으로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항목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심을 부정하는 생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천국의 빛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리도록 한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라



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열려 변모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안도 열려 말씀의 내적 의미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랜 뒤 사도 요한은 더욱 충분해진 환상 속에서 그분을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2-18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웨덴북은 영계에 가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성취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우리가 주님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생각하지 못할 경우 영계에 이르러서도 결코 그분을 “미주 대하여”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계에 가서 천사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가 하느님이시라는 진리를 인정해야함을 교육받아서 알고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정면으로 비치는 빛이 아닌 반사된 빛으로만 그분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영계에 이른 이상 주님을 바로 보기 위해 우리의 이해성 안에 이뤄져야할 기초를 형성할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능력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변모하신 그분을 볼 우리의 능력이다. 둘째는 성경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예언서 곧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얼마나 기꺼이 바라는지 또는 그분의 영을 얼마나 영접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의 내적인 의미를 공부하여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서 말씀을 덮고 있는 구름이 걷혀질 때까지 위쪽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예수님만이 서계시는 곳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백인대장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 2) 주님께서 백인대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4)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5) 요한의 특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6) 주님께서는 그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그분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이때 거기에는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 9)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 11)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 13) 그들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가?
- 14)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15) 본문에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 16) 그 기적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17)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 18) 어떤 세 사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근했는가?
- 19)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20) 이 환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21) 우리는 이 환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 22) 열들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3) 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이 변모를 볼 수 있었는가?
- 24)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2)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 3) 아들을 살리심
- 4) 감옥에 들어갔다 5)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6)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 7) 위대한 예언자 8) 열 둘 9)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침 10) 하느님의 나라
- 11) 온 동네에서 병을 고치고 전도함 12) 어느 여분의 것도 지니지 말라

- 13) 사람들의 집에서 14)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15) 오천명을 먹이심
- 16)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 17) 하느님의 그리스도
- 18) 베드로, 야고보, 요한 19) 주님이 희게 빛나심 20) 모세, 엘리야 21) 변모
- 22) 복합체 안의 모든 선과 진리,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애쓸 때 알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
- 23)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
- 24)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과는 자유로이 나누되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 30

### 선한 사마리아 사람

#### 머리말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까지는 몇 개의 장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장 안에는 비유, 제자들을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제 10장의 첫 부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금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명확한 빛으로 비춰 보게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0장 25-42절

10장: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하고 반문하셨다. 27.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28.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3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31. 마침 한 성직자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2.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34.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36.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음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39.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 교리 요약

- \* 주님을 예배함은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 \*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 \* 믿음은 선한 일로 결과 되어져야 한다.
- \* 각자 안에 든 선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 상응 공부

예루살렘 = 영적인 상태  
예리고 = 바깥쪽 생각과 활동 평면  
강도 = 나쁜 생각과 바람

## 해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종종 남용되기도 한다. 본문의 비유는 스스로를 존경하여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한 율법 교사를 위해 자비와 친절이 학식이나 출생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랑되어야 할 이웃은 각 사람 속에 있는 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든 진정한 교훈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비유가 행위적인 친절이야 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선하게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다 교회 밖에 더 선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주장을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나 교회를 지지하지 않는 변명으로 이용한다. 교인들보다 비교인들 중에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더 선한 사람들이 단지 교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고 불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지 못한 까닭이 그들의 신앙이 입술로만 예배하는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이지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등장한 성직자나 레위지파 사람은 진정한 교회나 교회의 교리를

표현하지 않고, 부패된 교회 곧 “정의와 자비 그리고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정의에 관한 지식을 그들의 이해성 속에 잘 붙잡아 두고 있었지만, 선을 행할 훈훈한 애착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의지가 결여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바램이나 추론이 우리속의 선을 강도질하려고 들 때와 같은 중요한 시험의 시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돕지 못한다. 즉, 선을 행해져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돕게 된다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히 행위적인 선한 일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음을 이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해준다. 주님께서는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는데”라며 불평하는 마르타를 아주 부드럽게 타이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를 선택한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선한 행위가 반드시 그분의 진리의 인도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선행이 자아로부터 있어지면 진정한 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바는 사랑되어야 할 이웃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이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든 선이다. 그래서 스웨덴복음은 우리가 이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 속의 선이요 이 선을 사랑해야 한다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 원리를 응용하거나 친구의 결점을 극복하려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 그 친구의 결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본 척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려면, 자녀의 과오가 드러날 때 자녀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보고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그것을 두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살이 점검함과 동시에 그들 속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찾아내어 돌봐주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는 선의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본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선한 특질과 더불어 나쁜 특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과 달라서 혹은 인간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남을 단죄하는 대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안에 든 선은 사랑하고 그 안의 악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웃 사랑이 두 가지 큰 계명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첫째가는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첫째가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본문 첫 부분의 교훈과 상호보충 되고 있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사도란 무엇인가?
- 2) 주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는가?
- 3)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4) 그들은 전도 때에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되었는가?
- 5) 사도들이 군중들을 먹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6)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 7)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 8)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누구인가?
- 9) 이 세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10)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위해 어떤 책을 참고 하셨는가?
- 12) 율법교사는 무슨 대답을 발견했는가?
- 13)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4)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비유로 답하셨는가?
- 15) 강도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
- 16)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하고 지나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17) 누가 이 사람을 도왔는가?
- 18) 사마리아인들이란 누구인가?
- 19)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0)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1) 주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22) 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즉시 이어지는가?

**질문의 답**

- 1) 파견함 2) 열 둘 3) 하느님의 나라 4) 영접하는 자들
- 5)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불러서서
- 6)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7)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 8) 베드로, 야고보, 요한 9) 변모
- 10)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1) 성경
- 12) 주님과 이웃사랑 13)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 15)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16) 성직자, 레위인 17) 사마리아 사람
- 18) 아시리아 나라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 19)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라
- 20)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타는 봉사하느라 분주했다 21) 마리아
- 22)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1

##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머리말**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문이 언급된 앞부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친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영혼의 눈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1장

11장: 1.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2.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 놓을 것이 있어야지’하고 사정을 한다면 7.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하고 거절할 것이다. 8.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9.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1. 생선을 달리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12.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병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으며 16.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18.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19.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20.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하면서 25.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26.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외치자 28.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하고 대답하셨다. 29. 군중이 계속 모여 들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30. 니스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31.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32. 심판 날이 오면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33.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뒷막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방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 가 식탁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손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깜짝 놀랐다. 39.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40.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41.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43.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45. 이 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희에게도 모욕이 됩니다”하고 투덜거렸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건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 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47.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고 하셨던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렸고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53.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54.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 \*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꾸준히 인용하셨다.
- \*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오게 된다.
- \* 가장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 상응 공부

- 초, 등잔 = 교리
- 등경 = 교회
- 잔 = 영적인 진리를 위한 용기

### 해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저주 받은 사람들은 당시 경건하다고 인식된 이들 중에서도 존경받았던 두 계층인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이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그들의 주님에 대한 행동은 그들이 위선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알고 있어서 그분의 오심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는 사람이 등장하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고려해 보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현존과 가르침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기적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분의 권능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서 밝혀질 때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들을 들은 우리의 태도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위선의 폭로의 진실성의 여부와 우리 스스로 그 행위가 죄가 되는 여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진정한 기독교」 제 147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 안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그 결과로 있어지는 행동이나 말 속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설사 자신 안의 내적인 것이 의견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으로부터 말하도록 유아기 때부터 가르쳐짐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위장과 아침 그리고 위선의 근원이 됨은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뜻하고 행동하되, 그것들이 모두 내적으로부터 있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말씀에서 “단순”으로 의미되고 있다(누가복음 8:15, 11:34 참조). 한 마음인 자가 두 마음을 가진 자 보다 더 현명하다.”

이상의 인용문은 우리가 “직설적인 직언”만을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언사에 꼬투리를 잡아 부정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거듭남을 향한 첫 단계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싫어하는 항목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재구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재구성의 초기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을 칭찬하시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 자녀의 행동이 하찮은 것이라도 많이 칭찬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공급된 메추라기와 만나의 이야기이다. 메추라기는 의를 행함에서 있어지는 인간적인 만족을 표현하고, 만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오게 되는 마음의 흡족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깥쪽에 속하는 선함들은 거듭남의 시초일 뿐이며, 이러한 선함의 발단이 마음에서 우러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그리스어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로 표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의 하늘인 마음에서 뜻을 세우고 손과 발의 행동인 땅이 그 뒤를 따라야 선을 행하는 진정한 질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와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 곧 그분께 선함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한 구절로 기록된 기적, 즉 주님이 악마를 쫓아내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병어리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의 탄생」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병어리가 된 즈가리아를 상기해보면, 병어리란 주님을 “고백”하는데 무능력함을 표현함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 역시 이 기적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과 군중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도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지 못했다. 자신의 이익 추구에 집착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권능이 베엘제불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수근 댔다. 이러한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가 말끔히 정돈된 집에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되돌아와 다시 자리 잡는 악령의 비유로 주님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무엇을 인정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곧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니느웨 사람과 세바의 여왕은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진 성경으로부터 있게 되는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녀서 성경에서의 그분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인정했다. 반면, 이미 성경을 가졌던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성경 안에 담긴 지혜를 깨닫기는커녕 주님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 33절에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 진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계신다. 초대 또는 등경은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의 주된 직무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드높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비유의 형태로 이 교훈을 요약하고 있다. 그런 다음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 또는 율법 교사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책망이 이어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제 2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별히 인생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경우 본문의 교훈을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상반된 느낌을 가진다고 인식될 때마다 이를 자신의 잔과 접시의 안쪽을 철저하게 깨끗이 닦을 기회로 삼아서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느낌을 재고하고 자신의 안쪽을 더 강건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기도문을 형태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 2) 율법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3)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율법학자들은 무슨 책을 공부했는가?
- 5) 위의 두 계층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6) 주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께서서는 어떤 징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 8) 본문에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 9) 주님께서서는 등불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위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12) 눈이 병들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 13) 주님께서는 무슨 과오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는가?
- 14) 위선이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어떤 것들인가?
- 16)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 질문의 답

- 1) 제 2반 참조 2) 성경을 베끼는 사람 3)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계층
- 4) 성경 5) 악마 6) 갈라져서 싸워 망하는 집안 7) 요나의 기적
- 8) 요나, 세바 여왕 9) 등경 위에 10) 등불을 켜서 감추어둔 자는 어리석다
- 11) 깨끗함, 순수함 12) 악으로 인해 보지 못함 13) 위선 14) 선한 체 함
- 15) 사람들이 보는데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며, 경건한 체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함
- 16) 주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

## 32

### 큰 잔치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바리사이파인들에 대해서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녔던 이유를 상기해본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율법학자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 성서본문: 누가복음 14장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 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하고 물으셨다. 4.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나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5.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1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18.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 하겠소. 미안하오’하였고 19. 둘째 사람은 ‘나는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यो. 미안하오’하였으며 20.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하고 말하였다. 21.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 와서 주님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22. 얼마 뒤에 종이 돌아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하고 말하니 23.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24.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5.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29.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30.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34.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
- \*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의문점을 갖게 된다.
- \*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신실하지 않은 친구와의 관계와 같다.
- \* 변명은 우리가 가진 애착의 진정한 본성을 노출 시켜준다.

### 상용 공부

황소 = 유용한 일에 대한 애착

결혼 = 마음과 이해성이 하나 됨, 또는 선과 진리의 결합

가난한 자 = 겸손한 마음

불구자 = 자신이 행한 죄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하는 이들

## 해설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큰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참석하도록 초대하고 계심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잔치란 주님의 집 곧 말씀 안에서 있게 되는 잔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님의 친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곧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초대를 듣게 되면 그 잔치에 기꺼이 참석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잔치에 가야 할 시간에 다다르면, 즉 말씀을 공부해야 할 시간이나 교회에 가야 할 시간 또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때를 만나면, 주님의 친구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많은 핑계를 늘어놓게 된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첨가된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으심을 그분의 과오로 비판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의 글자는 지키면서 그 율법의 의지에 해당되는 율법의 본의는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척해 왔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사들 중의 하나가 바로 본문에서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이 그분을 경외해서가 아닌 가식적인 것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듯이 이것을 그들을 가르칠 기회로 이용해서서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며, 그분의 눈으로 볼 때 바리사이파인들이야말로 그들이 경멸한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깊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게 된 기회를 이용해서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곳에서 수행하신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딱딱한 체 하고 싶어함을 지적하셨는데, 먼저 세상적인 추론으로 호소하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과 큰 잔치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비유는 그들의 마음에 기억되어 머무르기 쉽지만, 그 효과는 오랜 후에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교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의 세 가지 핑계는 상응으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적 잔치에의 참가에 방해물로 자리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자기집착을 묘사한다. 첫 번째 사람은 말을

사서 가뵐야 하겠다고 말했다. 발이란 마음을 상징한다. 이런 형태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의 주관을 발달시키는데 도취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으려고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은 겨릿소 다섯 쌍을 사서 그것들을 부려보려 간다고 했다. 황소란 바람직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사업에 충실 하느라 교회에 갈 틈이 없고 성경을 읽을 단 몇 분의 여유도 없다고 말하는 남자들과 집안일을 충실히 하느라 바빠서 주님과 성경 공부를 위해서 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여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열중한 일들이 인간적으로 매우 유용하여서 누구라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이들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일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굶기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방금 결혼했다는 이유로 올 수 없다는 사람의 경우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에 고취되어 자신이 선호하는 길을 간섭하려 드는 어떤 것도 배제하겠다고 으르렁대며 자신의 마음을 꼭 단아 잠근 경우이다.

결국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의 초대에 승낙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한 마음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와 약함 그리고 무지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인도와 강건함을 위해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산상설교의 팔복에서도 언급되는 사람들로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슬퍼하는 자와 온유한 자 그리고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기도 하다.

주님의 잔치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항상 베풀어지고 있다.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잔치에 올 필요가 없는 핑계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하다면, 우리는 이 초대를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잔치에 가서 음식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마감 짓는 구절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읽어 보자.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회가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할 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비유들로부터 있게 되는 더 많은 교훈들에 관한 것이다. 초대장을 받아 들고 잔치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꼼꼼히 헤아려 보지 않고 시작하여 결국 완성하지 못하는 자나 적의 군사력을 평가해 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는 왕 혹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다. 주님께서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요소가 되고 만다. 우리 모두는 “너희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고, 또 행한다면 복되다”는 주님의 권고를 가슴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왜 주님께서 말씀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놓으셨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과오를 보셨는가?
- 4)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주셨는가?
- 5) 그분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 6) 이들이 참석 못 한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인가?
- 7) 이들 속에 어떤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 8) 그분의 잔치를 즐기도록 발견된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
- 9) 비유속의 잔치 주인은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대하시는가?
- 11) 주님의 집은 어디인가?
- 12) 핑계를 댄 친구들은 누구인가?
- 13) 그분의 초대에 응한 가난한 자란 누구인가?
- 14)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다함은 무엇을 표현인가?

### 질문의 답

-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도우시기 위해
- 2)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계층 3)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
- 4) 큰 잔치 5) 친구들 6) 밥을 사서, 황소를 부려보려고, 결혼해서
- 7) 이기적이어서 무부분별함 8)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 9) 주님 10)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는 그분의 말씀

- 11) 교회 12)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  
 13) 겸손이 있는 마음 14) 주님의 선함과 진리로 우리 영혼을 먹이심

## 33

### 방탕한 아들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에 뒤따르는 비유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 성서본문: 누가복음 15장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새이과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하며 좋아할 것이다. 7.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 볼 것이다. 9.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뚝으로 돌아 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4.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15.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27.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30.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31.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에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 \* 말씀속의 진리는 영적인 부유함이다.
- \* 진리를 잃게 될 때 믿음도 잃게 된다.
- \*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용서역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다.

## 상응 공부

잃은 은전 = 잃은 진리  
우리의 상속 =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  
되지 때 = 감각적인 것에 대한 애착

## 해설

본문에 들어있는 세 가지 비유들은 경이로운 시리즈로 엮여져 있다.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바리새이 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심에 대해 혹평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비유들로 답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13절의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에 담긴 명백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즉 심정과 지성 그리고 행동이다. 이렇게 범하는 죄는 언제나 우리가 소유했던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손실을 초래한다. 스웨덴북은 악과 죄 간의 뚜렷한 구별을 강조한다(천국의 신비 제 8925항 참조). 악은 비의도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잘못임을 알면서 행하는 것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을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 가지 비유에서 묘사되고 있다. 잃은 양이란 우리가 이미 소유했었으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어떤 순진한 애착을 상징한다. 잃어버린 은전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해성의 더럽고 구석진 곳으로 밀쳐지도록 허용해 결국 버려지게 된 어떤 진리를 상징한다.

방탕한 아들이란 외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즐기며 그것이 하지는 대로 하기를 고집함을 상징한다.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란 주님을 표현하고, 그분으로부터의 상속물이란 각 개인이 타고나는 모든 능력과 부여된 모든 기회를 뜻한다. 주님께서서는 설령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안의 상속물이 그분의 것이어서 우리의 의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속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두고 계신다는 말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능력, 소유물 또는 강함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유보해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고향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리도록 하여 우리의 본성을 허비하고 말 것임을 예견하시는 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의 집에 머물도록 강요하시지 않는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가 주님의 특성인 이타적인 사랑이나 섬김을 빼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생 초기에 알고 선한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경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듯 보이는 다른 길을 뚫어보길 선호한다. 어떤 이들은 방탕한 아들이처럼 교훈을 깨닫기 전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돼지 때란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애착 또는 바램을 상징한다. 돼지들이 먹는 찌꺼기 곧 쥐엄나무 열매란 우리가 세상적인 쪽만을 응시하여 진정한 영적 자양분 대신 받게 되는 피상적인 사상들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책들이나 공연들은 이와 같은 찌꺼기들을 주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이것들 속에 뭔가 주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여기며, 때로 그것들 속에 진리인 듯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지로 그것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그것들 속에는 영혼의 자양분인 선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위와 같은 껍데기들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추론을 아주 조금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와 영적인 가치성을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탕한 이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17절에서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중얼거렸다”라고 가르치신다. 인간이 아주 심하게 고통당하여 자신이 정말 잘못 선택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해성은 겨우 다시 주님을 향해 열려져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중얼거린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의 생각과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자신의 거주지를 다시 얻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정정해야 한다고 결심하여 인생의 발길을 돌리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방탕한 아들같이 제정신을 차려 벌떡 일어나 섬김을 받는 대신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비유 속에 든 특별한 교훈들 중 하나를 살펴보자. 즉, 개혁신교회의 주장 중의 하나인 “믿음만으로”의 교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음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이 교리는 우리 삶의 악함과 상관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신성한 자비로 한순간에 씻어진다고 가르친다. 비록 청교도들이 이 교리를 받아 들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 받으려면 선한 삶도 필수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죄의 결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는 탈출구로서 이 교리를 악용하기도 한다.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고 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구성하려는 의지의 신실함을 보시면 즉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의지를 보시며 거뒀된 고백 따위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큰아들이 등장하는 비유의 대목에서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심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율법의 글자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이해성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며, 우리 모두가 잘못을 행하게 됨을 인정하고 꾸준히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삶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역시 우리의 영적인 고향에서 어떤 방탕이가 귀환하면 기뻐하는 천사들과 더불어 그의 귀환을 기뻐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큰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말해졌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셨는가?
- 4) 위 비유 속에서 어떤 손님이 처음 초대받았는가?

- 5)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 6) 이 핑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7) 잔치 음식을 즐긴 손님들은 누구인가?
- 8)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 9) 이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이 비유들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 12) 첫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3) 둘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4) 셋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5) 방탕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작은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는가?
- 17)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8)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결국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 20)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 주었는가?
- 21) 큰아들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
- 22)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3)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은 무엇을 그리는가?
- 24) 방탕한 아들이 낭비한 상속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2)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계층 3) 자기 자랑 4) 친구들
- 5) 받을 사서, 황소를 부려 보려고, 아내를 얻어서 6) 이기적인 무분별
- 7)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8) 세리, 죄인 9) 주님께 불평했다
- 10) 3 11) 뭔가를 잃고 찾음 12) 양 13) 은전 14) 아들 15) 낭비함
- 16) 돈 17) 먼 고장 18) 가난해지고 굶주림 19)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 20) 기쁨으로 21) 시기했다 22)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23) 잃은 애착, 잃은 생각 24) 모든 우리의 능력

## 34

### 부정한 청지기

#### 머리말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는 점이 자주 돌출되므로 이를 설명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지 모르나, 두 가지 비유 모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귀결된다. 이 구절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성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것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4.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6. ‘기름 백 말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이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8.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11.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뭇을 내어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17.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20.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23.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25.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26.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27.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30.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31.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것을 허용하신다.
- \*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말씀속의 법칙은 반드시 성취된다.
- \* 주님께의 충실함은 저절로 이웃에의 충실함으로 표현된다.
- \* 마음속의 선행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

### 상응 공부

- 밀 = 선함
- 백 = 충분한 양
- 개 = 자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연적인 애착

### 해설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읽다보면 두 비유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비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훈을 제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의 재물(mammon)이란 단어는 악덕으로서의 부를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아의 확장에 관련된 모든 형태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선함과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자연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모든 기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청지기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직분을 인식하고 우리의 재능을 그분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기적이거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데 그것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재물(mammon)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대비되는 선택에 있어서의 중간을 선택할 수 없다. 즉, 오로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청지기는 방탕한 아들이 그랬듯이 위기의 순간에 제정신을 차려 자신의 지위가 없어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나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는 일이 더 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께 진 빚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속에 갖고 있지 않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공적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 단지 주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내맡기며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청지기의 해결책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이것은 자신 안에 든 모든 자질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서 빚진 자들로부터 채무를 받아 냈다. 채무자들의 빚인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이란 우리가 주님께 빚진 사랑과 순종의 넉넉한 치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갚게 되는 기름 오십 말과 밀 팔십 섬은 우리가 주님께 지불하게 되는 우리의 한정된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지불할 때, 우리는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부자란 진리를 가졌으나 그것을 자신을 섬기는데 사용한 사람을 표현하며, 라자로란 진리가 결핍되어 있으나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그것이 오게 되면 이내 받아들이는 사람을 표현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는 재물을 섬겼고 거지는 하느님을 섬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칭되는 상태의 영원한 결과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비유의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다. 지옥의 불이란 자아사랑에서 나오는 불타는 욕망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주어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 즉 가식적으로 의를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더욱 배우려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육체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결정들에 영향을 준 행동들을 이루는 말단기관인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쓸모없게 된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형체를 주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영혼이 드러내는 형체는 어떠한 가식이나 허식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있는 그대로의 인격이 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사이에 있는 큰 구렁텅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으로서 선택하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인격이 영원히 고정되어 짐을 의미한다. 본문의 마지막 몇 구절은 특별히 흥미롭다. 자신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믿고 그 외의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 준다면 믿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실사 그러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을 모두 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는가?
- 2) 청지기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 3) 그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4) 그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5) 그는 무엇이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 7) 그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9)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주셨는가?
- 13)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 14)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 15)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16)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가?

- 17) 그러자 부자는 무엇을 부탁했는가?
- 18)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 19)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20)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2) 글자 상에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정이 어떻게 슬기롭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제자들 2)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3) 자기 직책을 잃음
- 4) 땅을 파는 일 5) 빌어먹는 일
- 6) 작접 채무자들의 빛을 탕감해 주는 일 7) 그를 칭찬했다
- 8)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남은여생 동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 9) 그렇게 할 수 없다 10) 부유함,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 11) 주님을 비웃었다 12) 부자와 라자로 13) 아브라함의 품(천국) 14) 지옥
- 15) 라자로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보내달라
- 16)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못 간다
- 17)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 해 달라 18)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
- 19)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낸다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 2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게 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야 한다
- 22) 스스로가 원래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며 자비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 35

### 종려 주일 (3)



## 머리말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과 자료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다. 하여, 모든 밤이 이 사건에 시간을 할애해준다. 주님을 왕으로 받기 위한 준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통치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면 즉시 거행되는 작업이 성전을 깨끗이 함임에 주목한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9장

19장: 1.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3.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5.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6.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8.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9.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 주셨다. 12.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보아라’하고 일렸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편에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16.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하고

말하자 17. 주인은 ‘잘 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하며 칭찬하였다. 18.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다섯을 벌었습니다’하고 말하자 19. 주인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20.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몫쓸 종이, 나는 바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지? 23.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며 호통을 친 다음 24.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하고 일렀다. 25.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열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자 26.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하고 말하였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29.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31.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32.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3.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34.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35.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겂옷을 엮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36.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겂옷을 벗어 길에 펴 놓았다. 37.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39.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이제 네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 와 44.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상인들을 쫓아 내시며 45.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성직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다. 48.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교리 요점

- \* 왕으로서의 주님이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이다. 자연적 이성을 완전히 다스린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 \* 말씀속의 아주 짧은 이야기에도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다.
- \*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길 원해야 한다. 겸손은 선행의 기초이다.

### 상응 공부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나귀 = 자연적 이성(추론)

### 해설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친숙할 것으로 보고, 본 반에서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한다. 우리가 신성한 진리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우리가 영적 원리의 지배하에 우리의 세상적 추론을 배치할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우리속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우리의 걸음을 벗어 던지게 된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 영혼에 든 내적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데, 즉 우리의 잘못된 사고나 이기적 바램들을 쫓아 내주시는 것이다.

자캐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세관장이란 세상적인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 곧 애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캐오는 “키가 작은”사람이었다. 그가 상징하는 애착은 우리를 악으로 쉽게 끌고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악한 쪽이 아니라 조금은 선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이 “키가 작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성경 상의 돌무화과나무란 하급에 속하는 무화과나무인데, 스웨덴북은 그것이 “외적 교회의 진리”를 표현해 준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이처럼 껍데기에 불과하여 쓸모없는 듯 보이는 진리들이라도 그것들에 기대고 순종하려 하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군중 위로 우리를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캐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캐오를 보시고,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세상적인 출세에 쫓려있던 우리의 흥미가 한때나마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라도 우리의 흥미가 그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자캐오의 경우같이 이런 즉각적인 행동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치도록 해주어 궁극적으로 기쁨과 구원이 당연히 뒤따르는 곳으로 이끈다.

주님께서서는 자캐오를 어여쁘게 보신 그분에 대해 불평한 이들에게 금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처지를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미천한 직분에서라도 기꺼이 성실히 행해 보려는 자캐오는 말씀에서 보물을 갖고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실패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영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 하시면서 하신 과멸의 예언은 지상의 도성과 고대 유대교회에 관한 언급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분의 간절함을 표현해 준다. 따라서 진리를 알고도 그에 성실치 못했던 이들이 빠져들고야 마는 피할 수 없는 과멸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과멸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다. 창세기의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있어지는 경고들은 선과 악 그리고 죽음과 생명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우리는 부활주일 전의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지닌 연약한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그것을 공격하여 과멸시키려는 모든 시험을 만나 극복하셨음을 상회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곧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주간 동안 자신의 특별한 약함과 과오들을 끄집어내서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늘 염두하고, 이것들과 싸우기 위한 강건함을 주님께 요청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과는 무슨 날에 관한 것인가? 왜 그렇게 불러 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는가?
- 3) 본문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계셨는가?
- 4) 본문에서의 주님의 길 방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어떤 사람의 길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 자캐오의 직업은 무엇인가?
- 6)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7)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8)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 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 12)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3) 주님께서 말씀해준 비유는 무엇인가?
- 14) 이 비유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 1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16)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17)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8) 새끼 나귀는 누가 타 본 적이 있는가?
- 19)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 20) 군중들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 21)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22) 바리사이파인들이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3)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4)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 25)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 26)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요한복음 12:13) 2) 예루살렘 3) 예리고
- 4) 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5) 세관원 6) 키가 작아서 7)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올랐다
- 8) “어서 내려오너라...” 9)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10)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 11) 불평했다 12) 비유 13) 금화 14) 열 중에게, 금화 한 개씩을...
- 15)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선용하라
- 16)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17)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18) 그렇지 않다
- 19) 나귀위에 겹옷을 깔았다 20) 나무가지들을 던졌다
- 21)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22) 돌들이 소리치리라
- 23)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24) 예루살렘의 파멸
- 25) 성전을 깨끗케 하심 26) 기도하는 집

## 36

### 부활절(3)

#### 머리말

성주간의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12

24장: 1.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3.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말해 주었다. 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 \* “돌이 굴러졌음”이란 말씀의 글자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위해서 주님께 의해 영감 된 글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 \* 진정한 믿음은 열심히 이해하려는데 있게 된다.
- \* 영화하신 그리스도를 뵈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지는 것이다.

## 상응 공부

무덤을 막은 돌 =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  
아침 = 새로운 상태의 시작  
여인들 = 애착들

## 해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생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천국의 빛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문을 닫도록 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가 주님이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변모하신 주님을 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 안에서 그분을 뵈 수 있다. 스웨덴붉은 저 세상에 가서 그분을 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뤘던 그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한 인격으로서 그분에 관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도 결코 그분을 정면에서 뵈 수 없으며 단지 산만한 빛으로만 그분을 식별할 수 있다. 설사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천사들로부터 예수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고 인정했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을 마주 뵈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만이라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주님의 당당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시작이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군중의 환호는 주님께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드러내 놓고 질책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실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속의 죄나 위선을 밝은 빛 안에서 보고 그것들을 단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열렬한 믿음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서 이내 식어 버리기 쉽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듭나는 삶은 일보라도 전진하게 되며, 우리 안에 강함이나 저항력이 생기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된다.

주님께서 과월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 그분은 흔히 과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신다. 십자가는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투쟁의 극이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수단으로 당시의 인간들이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던 악의 힘, 즉 지옥의 권세를 누르시고 정복하셨던 것이다. 과월절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이듯이, 우리는 그 절기 대신에 제정하신 성만찬에서 그분의 지상 생애와 죽음을 수단으로 지옥으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직접 구출하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님께서 한정된 삶을 사는 육체의 죽음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권능으로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당신을 구출하셨더라면, 그분은 그분의 적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강제로 인정하도록 하실 뿐 그들의 마음은 바꾸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악마의 노예에서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상태는 노예에서 노예로 전환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노예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예는 다만 두려움으로 순종할 뿐이며, 두려움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행복이란 자발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스웨덴복은 주님의 마지막이며 최고의 시험은 인간을 강제로라도 구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권능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목격하며 그분께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모든 희망을 쉽게 포기하고 그분을 떠났던 것을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나마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이켜 보면 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과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과 그분을 꾸준히 신뢰하면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들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말씀에서 여인은 애착들을 상징한다. 여기서의 여인들은 주님에 관하여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던 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생각은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 보려는 의지가 그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분의 시신에 비를 향료를 준비했다. 향료란 선으로부터 있는 자연성 안에 든 내적 진리를 상징한다. 스웨덴봄이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단순한 선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진리를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나 선해지기를 한결같이 원하는 자들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마음의 문이 항상 천국 쪽으로 열려 있어 천국의 영향력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게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위의 여인들이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 이유이다. 무덤을 막은 돌이란 교회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거짓 해석들, 특히 메시아 이신 주님 안에 든 신성한 진리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짓 해석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역시 그분의 공생애를 세상적인 성공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애착이 육체보다 중요함을 배워서 당시의 사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의 신체적 편안이나 쾌락으로 인해 영적인 것들을 거둬하여 포기하려 들고 신체적 고통이나 물질의 부족을 영적인 것과 바꾸려 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정한 베드로의 행동에 혀를 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단지 세 번이 아닌 어쩌면 평생 동안 주님을 부정하며 그분에게서 슬쩍 뒤돌아선 적이 많았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미리 일러두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했음을 의아해하기 전에 날마다 읽는 성경 구절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커녕 한 구절을 단 하루만이라도 유념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셔야 했듯이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도 다시 일어나셔야 한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되돌아와 그 경이로운 소식을 말해 주었을 때 제자들이 “부질없는 헛소리가 아닌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과 같지 않은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 2)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3) 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서 자캐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7)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 8) 군중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 10) 주님께서는 성에 들어가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께서는 성주간동안 어디서 묵으셨는가?
- 12)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 13) 그분이 새로 제정한 기구는 무엇인가?
- 14)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15)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 16) 어느 요일에 십자가형이 거행되었는가?
- 17)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모셔졌는가?
- 18) 누가 일요일 아침 무덤에 왔는가?
- 19)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20)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21)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2)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는가?
- 23)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24)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25)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질문의 답

- 1) 자캐오 2) 누가복음 19장 참조 3) 그가 미움 받는 세관원이어서 4) 금화의 비유 5)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라 6) 나귀 7) 왕이나 관관이 나귀를 탔기 때문 8) 왕으로서 9)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았기 때문 10)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 베다니아 12) 과일절 음식을 드심 13) 성만찬 14) 가리옷 유다 15) 십자가형 16) 금요일 17) 새 돌무덤에 18) 여인들 19) 향료 20)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졌다 21) 그분은 일어나셨다 22) 그분이 삼일만에 일어나신다고 한 말씀 23) 믿지 않았다 24)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25) 주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이다

## 37

###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 머리말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본과를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3-53

24장: 1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14.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यो.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성직자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현에게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가보았더니 23.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알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26.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29.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30.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 졌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에 열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40.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하시고 45.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46.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된다고 하였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하고 말씀하셨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51.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52.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 53.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 교리 요약

- \*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가 모든 인류를 위해 말씀을 열어 보이도록 한다.
- \*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 \* 말씀을 믿고 공부해야만이 천국적인 교리를 받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상응 공부

빵을 떼심 = 선을 수단으로 결합함

구운 생선 = 사랑에 의해 유용하게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  
벌집 = 자연적인 기쁨들

## 해설

사복음서는 부활 후 주님의 출현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장에 있는 사건들을 차례로 읽고 목록을 작성하여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대목 역시 우리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때로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토마에게 손을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최소한 두 번 이상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비록 수의는 남아 있었지만 무덤에 놓여 있었던 육체도 사라졌다. 이런 사항들과 더불어 본문에서 주님께서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일어나심은 우리가 죽어 일어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우리는 죽어서 육체를 남기게 될 때 자연계에서의 삶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감각이나 의식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웨덴봄이 설명하는 바대로 영화 하신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지셨고 “궁극의 것들”까지 신성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살고 계시며, 더욱이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까지도 함께 하시게 된 것이다.

본문에 기술된 두 번의 출현은 사도들이나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믿어야 하는 중요성과 성경의 글자 안에 신성한 진리가 살아있다는 확증을 깊이 심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해성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후에 있게 되는 사도들의 전도여행에서 그 이해성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당시의 사도들이 가졌던 말씀의 내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스웨덴봄의 이해성을 통해 말씀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증과 함께 말씀의 내적인 이해에 대한 해석의 기본 원리를 출판하도록 하셔서 말씀의 깊은 속뜻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확증과 더불어 말씀의 속뜻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해주신 이 경이로운 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새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재림의 빛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의

두 제자들과 같이 “얼마나 심정이 뜨거워 짐을 느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씀해주셨다(이사야 5:4).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스웨덴북의 저서들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에 의해 가르쳐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볼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하시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라고 나무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사도행전 1:3). 우리가 이분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모든 선함과 진리가 그분에게서만 흘러나옴을 알고 믿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과거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분부는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충실히 공부해서 그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여 참된 말씀이란 글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적인 의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계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달받은 상대방을 계발해 주고 구원함이 자신이 명석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섭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첫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의 부활을 처음 배운 이는 누구였는가?
- 3)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



- 5) 누가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걸었는가?
- 6)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7)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했다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9) 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주님께서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11)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이때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3)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확증시켜 주셨는가?
- 14) 그분은 무엇을 잡수셨는가?
- 15) 그 다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16)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8) 승천은 어디서 거행되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 20) “빵을 떼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던 말씀속의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22) 주님의 부활후의 몸은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 질문의 답

- 1)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 2) 여인들 3) 헛소리로 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 5) 예수님 6)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7) 본문 25절 8) 성경에 있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
- 9)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10) 심정이 뜨거워졌다 11)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 12)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함 13)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 14) 생선과 꿀 15) 성경의 내적 의미
- 16)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17)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하늘로 올라가심
- 19) 베다니아 20) 사랑을 나눔 21) 천국의 교리 22) 신성화 되신 신성한 실체 (glorified, divine substantial)

## 네 기수들

###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계시록 1-5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네 생물과 봉인된 책 그리고 어린 양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6장

6장: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뢰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5. 어린 양이 세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세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 가운데서 들려 오는 듯했습니다.

7. 어린 양이 네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네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

17.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 교리 요약

- \* 말씀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 \* 예언적 말씀의 결과들은 사람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 교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 상응 공부

흰 말 =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

붉은말 = 선해지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

검은 말 = 진리가 없는 말씀의 이해

푸르스름한 말 = 선과 진리의 양 측면을 파괴하는 성경의 이해

## 해설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헤안에서 조금 떨어져 위치한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때인 그의 생애 말기쯤에 주어진 긴 환상에 관한 기록이다. 이 책은 신약성서에 있는 예언서로서, 장차 있게 될 기독교회의 역사와 그 위에 있어질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롭게 이어질 새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계시록은 일곱 등경 사이에 서 계시는 주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과 더불어 요한이 감독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편지들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 이 편지들을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이 환상이 주어진 때인 A.D. 90년경에 기독교 모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달되면서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과 열정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곱 교회 각각은 각기 좋은 면과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 서로 다른 경고와 충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물을 놓고도 똑같이 보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게 그분의 말씀속의 진리를 주시며, 우리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정도만큼만 믿고자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른 삶을 이루도록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계신다. 여기서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 이유는 이 선택이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세상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계시록 제 4장에서는 심판의 상징인 큰 옥좌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즉 어린양이신 주님만이 여실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5장을 공부하면서 참고하게 되는 것은 계시록 20장 11-12절인데, 심판이란 두 책의 비교 대조 곧 “생명의 책”과 우리의 삶에 의해 쓰인 책과의 대조인 것이다. 이 대조에서 좋고 나쁜 것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진실로 원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으로 자신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곱 인이 떼어짐이란 성경이 진실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도록 우리의 이해성을 여는 것을 묘사한다. 각 봉인이 떼어짐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갖는 여러 가지 태도를 판가름해주는 것이다. 네 마리의 말이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네 가지 방법(태도)들을 상징한다. 흰말이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 혹은 그분께 순종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서를 읽을 때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말씀의 진정한 이해를 상징한다. 흰 말 위의 기수만이 시험을 정복할 수 있다. 흰말은 계시록 19장 11-13절에서 다시 등장하고, 그 기수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붉은말이란 말씀에 순종하려는 바램없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속의 과오를 찾아내어 고쳐보고자 하는 진리의 응용을 원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총명을 타인과 자신을 상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만다. 그 이유는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진리는 거짓화 되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검은 말이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흥미조차 없는 자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은 말의 기수는 저울을 들고 모든 것을 달아보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아주 조금만 지불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가짐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글자에 정성을 쏟고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것이다.

푸르스름한 말이란 말씀속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르게 살아보려는 바램을 모두 상실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들은 주님께로 접근하려는 길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을 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와 여섯째 봉인이 떼어짐이란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심판 속에서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 자들은 겸손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한다. 악한 자는 주님의 얼굴로부터 스스로를 감추려고 애쓴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마지못해 서의를 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타인의 눈에 비춰져 그 행위의 진위가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참작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본문의 환상이 가지는 세부사항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스웨덴북의 저서 「계시록 설명」을 참고하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뒤의 참고문헌은 예증으로 인용된 일부이기도 하다.

## 질문 정리

1)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2) 이 책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3) 요한이 본 첫 번째는 무엇인가?
- 4) 그분은 누구들을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5) 심판의 큰 상징물은 무엇인가?
- 6) 누가 옥좌 둘레에 앉아 있었는가?
- 7) 누가 옥좌 위에 앉아 계셨는가?
- 8) 어떤 생물이 이 환상에서 나타났는가?
- 9) 옥좌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 10) 이 책은 무엇인가?
- 11) 그 책에는 몇 개의 봉인이 있었는가?
- 12) 누가 그 봉인을 뿔 수 있었는가?
- 1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14)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을 보았는가?
- 15)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을 보았는가?
- 16)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17) 네 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계시록 2) 사도요한 3) 부활하신 주님 4) 일곱 교회
- 5) 옥좌 6) 24 장로들 7) 주님(어린 양) 8) 거룩들 9) 두루마리, 책
- 10) 말씀 11) 일곱 12) 주님(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어린 양) 13) 흰말
- 14) 붉은, 검은, 푸르스름한 말 15)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 16) 지진 등등 17)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 일곱째 봉인

## 머리말

본문의 내용은 상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지는도 모른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문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8, 9장

8장: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었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 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찼고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 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20.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 교리 요약

- \* 참된 영적 상태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 \*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신성한 진리이다.
- \*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

### 상응 공부

나팔 = 신성한 진리가 하늘로부터 밝혀져 명백해짐

### 해설

앞서 우리는 네 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네 말과 네 기수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을 상징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봉인의 떼어짐이란 신성한 진리를 바라는 측면에서 있게 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의 대체적인 상태임도 살펴보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구에 심판이 있게 될 것임과 그 심판의 때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글자대로 성취되는 때라는 것 그리고 그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며 선한 자는 천국에 들러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것들 중 하나는 첫 강림에 대한 구약성서의 많은 예언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글자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셨다고 믿었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웨덴북에 따르면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은 영적으로 모두 성취되었고 신약 성서의 모든 예언 역시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봉인의 떼어짐은 악한 자 위에 떨어지는 심판에 대한 상징적 묘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환상에는 두 가지 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는 각 개인이 저 세상 삶에 들어갈 때 있어지는

개별적인 심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8세기 중반 주님의 재림 시에 거행된 기독교회 위에 있어진 일반적인 심판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른다. 앞서 우리는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교회로 이어지는 각 교회의 끝에서 언제나 심판이 있어왔음을 수차례 살펴보았다. 스웨덴북은 각 교회속의 사람들의 상태가 밝히 드러나 남아 있는 일부의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된 다음 이렇게 분리된 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져 이들이 핵심이 되어 새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그분이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하늘의 구름에 오실 때 기독교회에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두셨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라는 예언과 본문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제 계시록 7장 1-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본문의 공부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말하는 바는 주님께서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도록 허락하시기 전 뒤따라오는 파멸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선한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으로부터 심판이 우리가 영계에 들어갈 때 혹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일 때 주님의 명령에 의해 있게 되는 즉각적인 대 변화가 아님을 배우게 된다. 이 세상에 여전히 고대교회의 잔류인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며 유대교회와 기독교회 역시 우리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것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오로지 태고교회만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 속에서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새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명백히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마지막 심판이 영계에서 거행되었고 그 결과는 지상에서 아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각 개인에 대한 심판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실질적으로 끝을 맺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있어지는 때 사건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즉 각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바람이 하느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주님의 도장이 자신에게 찍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악령의 침범으로부터 보호되면서 적절한 훈육을 거쳐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웠다면, 본문에 표현된 단계적인 파멸이 우리에게 거행되게 된다. 나팔소리란 말씀의 어디에서나 신성한 진리의 선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소리란 신성한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악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기심을 의롭게 보이도록 덮어두었던 추론속의 거짓들이 폭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9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와 같이 악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바뀔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적인 행복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워나가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기쁨이 이기적인 것이었더라면, 그 기쁨의 발견은 오로지 지옥에서만 있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은 어떤 책인가?
- 2)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4)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5)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승마자는 무엇으로 불렸는가?
- 6)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7)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8)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0) 요한은 하나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11) 그 천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2) 여덟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천사는 향로에 무엇을 담았는가?
- 14) 그 다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향로를 채웠는가?
- 15)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6) 본문에서 몇 개의 나팔이 불어졌는가?
- 17)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18)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9) 끝없는 지옥 구덩이의 악마에게 어떤 두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0)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회개했는가?

- 21)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22)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가도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주님 3) 흰말 4) 붉은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5) 죽음 6) 제단 아래에 있는 선한 자들 7) 악한 자들 8) 바위가 자기들을 숨겨주도록 9) 침묵 10) 일곱 11) 나팔 12) 금향로 13) 향 14) 제단 불 15)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16) 여섯 17) 우박, 불덩어리, 큰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18) 썩 19) 아바돈, 아폴리온(파괴자) 20) 회개하지 않았다 21) 첫 기독교 시대 안에 있던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괴 22)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머리말

말씀의 전체적 윤곽을 되새겨 보면서 본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정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21장: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세째는 옥수로, 네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청옥으로, 열 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도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다.

### 교리 요점

- \* “거룩한 성”은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규율하기 위해 선택한 천국적인 원리로 건설된다.
- \* 새 예루살렘은 삶의 이상향을 그려주는데, 이를 향하여 각 개인들이 날마다 분투하는 것이다.

### 상용 공부

- 성 = 교리
- 거리 = 삶의 길
- 성벽 = 말씀에 대한 글자적인 측면
- 길이 = 선함의 척도
- 넓이 = 진리의 척도
- 높이 = 각 수준에 있는 선과 진리

### 해설

계시록의 일부는 영계에서 있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완성을 다루고 있다. 즉, 악과 거짓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결국 주님의 군대에 의해 패하여 지상생활에서 그들이 선택해온 기쁨이 있는 곳인 지옥으로 철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계는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스웨덴북의 「계시록 밝힘」에서 본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요약으로 시작된다. “이 장은 마지막 심판 후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다룬다. 즉, 새교회가 심판 후 새 천국을 통해 지상에 존재하게 될 것과 그 교회가 주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이 1절과 8절로 상징되고 있고 그 교회가 주님과 결합함이 9절과 10절로 상징되어 있으며, 그 교회의 말씀에서 온 총명에 관한 것이 11절에 묘사되어 있고 그 교회의 교리에 관한 것이 12절부터 21절까지에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질(質)에 관한 것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교회로

명명된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이름과 그 이름의 근원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속된 교회의 이름을 물을 때 단순히 “새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듣는 이가 의문을 가진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이름의 근원이 계시록 21장에 있음도 언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은 새교회인의 이상향으로 삶 가운데에서 다듬어져야 한다. 이 이상향은 계시록에서 도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도성은 교리와 상응된다. 선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만으로는 새교회인이 되지 못한다. 스웨덴붉은 선이 진리로부터 그 속성을 갖게 되며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만 힘을 발휘한다고 거듭하여 강조한다. 그래서 도성이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성벽과 대문 그리고 기초도 가졌던 것이다. 또한 대문들은 각 방면에서 세 개씩 총 열 두 문들이 있어서 모든 천사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문들이 항상 열려 있었지만,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흠찬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개인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에서 각자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이뤄진 삶에 대한 책이 하느님의 말씀인 생명책과 비교 대조되는 것이다.

거룩한 도성은 금으로 되어있고 거리도 금이며, 천사들이 가진 측량자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새교회인의 생명의 품질임을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만이 그 도성속의 성전이요 그 도성을 밝게 해주시는 빛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교회인이 걸어야 할 길은 섬김을 사랑하는 길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타적 사랑으로 된 측량자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거룩한 도성을 묘사하는 모든 세부사항은 진리를 상징한다. 도성의 한계를 긋고 성내를 보호해주는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데, 이 성벽은 투명한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내적 의미로 볼 때 진리가 새교회속에서 글자를 통해 빛난다는 뜻이다.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대문에 적혀있고, 그 주춧돌에는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문이란 소개하는 진리를, 열 두 지파란 교회 속에 든 모든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기초란 기독교인의 교리에 속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열 두 사도란 “주님에 관해 말씀 속에 있는 교리와 그분의 계명에 일치되는 삶에 관한 모든 교리”를 상징한다. 주춧돌을 장식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쁨을 얻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의 글자 속에 담긴 특별한 진리를 말한다. 말씀을 읽고 얻게 되는 진리들은 아주 다각적인 것으로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항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새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각기 특별한 진리로 섭리하심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성의 문에는 열두 개의 진주가 있는데, “그 열 두 대문은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다.” 진주란 주님에 관한 지식과 그 인식을 뜻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과 마태복음 13장 45-46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님을 인식하며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도성에 슬쩍 들어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거룩한 도성에 관하여 언급된 사항 중 또 다른 하나는 그 도성이 “네모가 반듯했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만큼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진 만큼 선함을 가지며, 이 둘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곧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의 측면이라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벽을 짠 자는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을 자아에 맡겨 간직해서는 안 되고 자아로부터 떼어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로 우리 영혼을 언제나 정결케 하여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천사이든 사람이든 간에 천국적인 이상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그 도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 3) 그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 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5)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이 있는가?
- 6) 그 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7)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는가?



- 9)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 10) 그 주춧돌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 11) 그 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12) 성안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13) 그 도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 14)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5)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6)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7)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측량했는가?
- 18) 그 도성의 가로 세로는 어떠했는가?
- 19)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20) 우리 교회가 본문을 특별히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21) 성과 성의 길이 순금으로 되었다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22) 누군가가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 23)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 질문의 답

- 1) 거룩한 성 2) 하느님, 하늘로부터 3) 새 예루살렘 4) 금 5) 12
- 6) 이스라엘 지파 7) 벽옥 8) 12 9) 사도 10) 보석 11) 금
- 12) 주님이 성전이시다 13) 하느님의 영광 14) 악한 사람
-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 16) 선한 삶을 영위했음
- 17) 금자 18) 네모반듯했다 19) 선한 인격은 네모반듯하기 때문
- 20)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주기 때문
- 21)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도록 하시기 위함
- 22) 새 예루살렘 교회 23) 계시록 21-22장을 숙독하자.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